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南 北 韓 社 會 體 制 比 較 에 關 한
序 說 的 研 究

指 導 教 授 高 性 俊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國 民 倫 理 教 育 專 攻

金 永 敏

1987 年 度

南北韓 社會體制 比較에 關한
序說的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永 敏

指導教授 高 性 俊

1987年 7月 日

金永敏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7年 7月 日

目 次

第一章 序 論	1
第一節 研究의 目的	1
第二節 研究의 構成과 制限點	3
第二章 社會體制的 概念과 分析方法	5
第一節 社會體制的 概念	5
第二節 分析方法	6
第三章 南北韓 社會의 體制的 特徵	11
第一節 南韓 社會體制的 特徵 — 權威主義的 性格을 中心으로 —	11
第二節 北韓 社會體制的 特徵 — 全體主義的 性格을 中心으로 —	17
第四章 南北韓 社會階層과 統制 比較	22
第一節 社會階層	22
1. 階層構造	23
2. 階層構造의 特徵	29
第二節 社會統制	31
1. 組織生活	31
2. 私 生 活	34
第三節 社會逸脫	36
1. 逸脫樣態	37
2. 逸脫原因	42
第五章 南北韓 社會化 過程 比較	46

第一節 社會化 目標	46
第二節 社會化 媒介體	50
1. 家 庭	50
2. 同僚集團	52
3. 學 校	53
4. 職 場	56
5. 매 스 콤	58
第六章 結 論	60
○ 參 考 文 獻	62
○ Abstract	67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의 目的

韓半島에는 古代에 高句麗, 百濟, 新羅 等の 單一民族으로서 三國이 竝立한 때도 있기는 하였으나 統一新羅 以後로는 한 나라를 이루고 高麗, 李朝를 거치는 동안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 諸部門에서 統一을 이루어 왔다. 비록 日帝治下에서 被壓迫 民族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은 오늘의 南北韓을 합한 全民族이 같이 고생한 것이며 그와 같은 悲劇은 그것이 비록 不幸한 것이지만 民族的 團結과 同胞愛를 強化하고 自身을 再認識할 수 있는 契機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解放後 38 度線을 중심으로 美軍과 소련軍에 의해 南北韓에 각기 별개의 政治的 實體가 수립되면서 雙方은 결코 兩立될 수 없는 體制樹立 (system-building)의 과정을 걸기 시작했다.¹⁾

美軍의 점령하에 있던 南韓은 軍政의 실시와 더불어 自由民主主義를 政治理念으로 하는 體制樹立의 方向으로 나아갔는데 반해 北韓은 소련軍이 의도한 바에 따라 社會主義建設을 目標로 하는 人民民主主義 政權을 수립하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南韓의 政治體制는 어떤 특정한 階級의 利益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平等하다고 인정되는 個人들로 구성된 國家構成員 全體의 이익을 대변하는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내세우고 이의 定着에 노력한 반면, 北韓은 共產主義 革命理論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獨裁 體制의 수립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體制樹立 단계에서부터 이데올로기 면에서나 體制의 機構上 南北韓의 政治體制는 고도의 兩極化 現象을 보였으며, 이는 美蘇간의 國際的 兩極體制的 出現과 6.25 戰爭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申正鉉, “分斷時代의 民族現實과 統一史觀 定立의 課題”, 「정신문화연구」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209.

이와같은 전혀 相異한 政治的 이데올로기 下에서 南北韓의 兩極的인 樹立關係는 半世紀 가까운 세월 동안 民族分裂의 樣相을 띠고 서로 相剋, 葛藤을 深化시키고 있으며 平和의 方法에 의한 統一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民族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社會體制 下에서 서로 다른 生活樣式을 長期間 持續하게 될 경우 民族의 同質性은 멀어지게 마련이다. 解放後 兩陣營間 이데올로기의 葛藤은 南北韓 政治體制의 兩極現象에만 그치지 않고 社會體制의 側面에까지 影響을 줌으로써 單一民族으로서 共有했던 傳統까지도 兩分하고 그것의 深化는 民族分裂을 永久化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는 外部的 作用에 의하여 兩分된 國土分斷의 結果를 精確하게 檢討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後 우리와 같은 分斷國家였던 東西獨은 統一의 強烈한 念願과 主體的 力量으로 雙方間에 공식·비공식 交流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南北韓間에 對話를 통한 統一努力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解放直後 金九와 金奎植이 주도한 소위 南北協商에서부터 現在의 經濟會談, 赤十字會談, 體育會談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南北韓의 對話와 接觸의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아직 뚜렷한 成果를 가져오지 못했다. 비록 1970 年代에 들어서 韓半島의 周邊 國際情勢가 새로운 和解時代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 內에서의 南北韓關係는 별다른 變化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것은 그만큼 南北韓關係가 상당한 수준의 對峙關係로 특징 지워졌음을 意味한다.

우리는 이러한 對立과 摩擦이 激化되어가는 現實 속에서 우리 自身の 主體的 力量으로 統一을 위한 作業을 漸進的으로 進行해야 한다.

筆者는 統一을 위한 여러 作業中 政治的, 經濟的 接近方法의 重要性 못지않게 社會體制 혹은 社會構造의 側面的 事實把握과 研究 또한 重要的 것으로 믿고 있다. 政治的 經濟的 이데올로기의 兩極的 深化가 民族分裂의 外形的 內容이라면,²⁾ 社會的

2) 崔在律, 「南北韓 社會文化 體系 比較에 관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76), p.3.

側面의 兩極化는 民族分裂의 深層的 內容이다. 비록 政治的으로는 一時的으로 分裂 되었다고 하더라도 社會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의 差異가 크지 않으면 쉽게 外形의 意味의 政治的 分裂은 統合되고 아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社會體制나 構造의 異質性이 擴大, 深化되는 날 政治的 統一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外形에 不適當 兩 民族分裂은 尙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本 研究는 統一努力의 一環으로서 우선 南北韓間의 異質的인 社會體制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필요하다고 보고 南北韓의 社會體制를 比較, 整理함으로써 兩體制의 差異點을 把握하여 此後 南北韓 社會體制 比較 研究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第二節 研究의 構成과 制限點

本 研究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우선, 第二章에서 社會體制의 概念을 敘述하고 分析方法을 論議함으로써 本 研究의 方向을 提示하고,

第三章에서는 해방이후 現在까지 지속되어온 體制的 特徵을 各各 權威主義와 全體主義로 보고 이에 觸점을 맞춰 論議하며,

第四章에서는 南北韓 社會에서 相異한 階層構造와 그 特徵을 그리고 團體生活, 私生活에서의 統制와 여기서 發生하는 逸脫을 살펴봄,

第五章에서는 南北韓間에 施行되고 있는 社會化 目標와 幼兒期부터 成人에 이르기까지 社會化 過程을 各 媒介體別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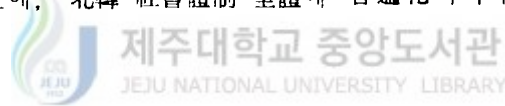
그리고 第六章에서는 結論的으로 研究 結果를 本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綜合的으로 論議한다.

一般的으로 學問的 研究를 한다고 함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우리가 認識할 수 있는 주어진 條件下에서 그 問題가 가지고 있는 가장 普遍妥當한 解答을 찾아내려는 意味를 含蓄한다.

本 研究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解答은 上記한 바와 같이 北韓의 社會體制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南韓과 어떻게 다른가를 比較 考察해 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制限點은 우선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관련된 資料蒐集의 問題이다. 北韓의 社會體制를 精確하게 把握하려면 직접 그 곳에서 생활하는 方法이 있겠으나 이는 전혀 不可能한 일이고 間接적인 方法으로 北韓의 新聞을 통해서 社會面에 관련된 情報나 消息을 알려고 해도 이 또한 不可能하다.³⁾ 그렇기 때문에 制限된 情報로나마 北韓社會의 모습을 推定해 보는 努力도 좋은 출발이라 할 수 있으나 資料 供給에 획기적인 轉機가 오기전에는 이 分野 研究는 當분간 어렵다⁴⁾고 할 만큼 資料에 따른 制約性은 深刻하다.

둘째는 制限된 資料나마 그 資料에 대한 信憑性의 問題이다. 人접 關聯學問分野의 資料를 援用하거나 越南人士들의 體驗談, 歸順者들의 證言 그리고 일부 西方記者들이나 學者들의 北韓 印象記 등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의 發言 內容들에 대해서는 北韓의 統制된 生活 속에서 自己 周邊만의 體驗談일 可能性이 많으며, 北韓을 訪問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一般住民들과의 接觸은 물론 그 活動範圍를 극도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⁵⁾ 北韓 社會體制 全體에 普遍化시키기에는 상당한 問題가 뒤 따른다.



3)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서울: 汎友社, 1979), p.203 參照.

4) 李相禹, “北韓研究,” 「共產圈 研究現況」 (서울: 法文社, 1981), p.92.

5) 1981년에 북한을 방문했던 7명의 在美韓國人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過剩 案内되었으며 활동시간 동안에는 혼자 보낼 수 없었다. 안내원들은 어느 곳이나 동행했으며 비록 같은 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서 하였다. 또 어떤 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자들과 만날 때 심지어 등산까지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안내원이 낮잠을 자거나 안내원이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호텔 옆 공원이나 뒷길에서 잠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서울: 한울, 1986), p.227.)

第二章 社會體制的 概念과 分析方法

第一節 社會體制的 概念

體制(system)란全體의 目標을 위하여 함께 作用하는 構成要素의 集合 또는 어떤 目標을 成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어 움직이는 部分의 集合, 즉 構成要素로서의 部分이 있고 이 部分이 相互 機能의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全體가 주위 환경과 區分되어 하나의 集合體(collectivity)로 확인된 形態를 말하는 概念이다.⁶⁾ 간단히 要約하면 體制란 相互 聯關된 部分으로 構成된 全體를 意味한다.⁷⁾ 이렇게 볼 때, 社會體制(social system)는 기본적으로 境界지워진 狀況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個人들의 직접·간접적인 相互作用으로 構成된다.⁸⁾ 즉 社會體制는 두 사람 이상의 行爲者가 서로 다른 社會的 位置나 役割을 담당하면서도 공통된 規範과 價値나 文化的 目標나 象徴을 기초로 해서 關係를 맺고 있는, 類型化되어 있는 交涉過程을 抽象化하여 概念化한 것이다.⁹⁾ 그런데 社會體制란 서로 相互作用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意味하면서도 이 社會體制를 構成하고 있는 特定 個人들과는 별도로 區別되는 일종의 社會的 單位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體制는 단순히 特定 個人들의 集合體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特定 地位를 갖고 相互作用을 한다는 점, 즉 地位間的 相互依存性을 강조한 概念이다.¹⁰⁾ 결국 社會體制는 相互 聯關된 社會的 地位를 말하며 그 地位를

6) 여기에 한가지 더 例를 들어보면, 「체제(system)란 부분들, 구성요소들, 인식할 수 있는 상호관계의 질서를 포함한 과정들 그리고 복합체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간의 상호 의존의 유사한 형태를 말하는 개념이다.」(D.L.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5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80), p.458.

7) 吳甲煥, 「社會의 構造와 變動」(서울: 博英社, 1980), p.25.

8) G.D.Mitchell, ed., *A New Dictionary of Soci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203.

9)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p.72.

10) 吳甲煥, op. cit., p.25.

그런데, 社會體制를 「社會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人間의 生活行爲 및 多様な 社會關係, 그리고 여러 종류의 社會集團이 歷史的으로 規定된 하나의 原理에 의해 유지되고 有機的으로 相互 聯關하여 작용하는 力動的인 統一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歷史性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高永復, 「現代社會學」(서울: 法文社, 1979), p.279.)

어떤 구체적 個人이 접하는 관계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體制的 構成 部分은 社會的 地位라고 할 수 있다.

社會體制라는 概念을 구태여 社會關係나 集團이니 하는 概念으로 쓰지 않는 理由는 體制를 構成하는 部分間의 相互聯關性和 相互聯關된 部分들이 하나의 全體를 形成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概念을 使用함으로써 각 社會的 單位들이 어떤 요소로 어떻게 構成되어 하나의 全體를 이루고 있는가에 關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예컨대, 特定 社會的 單位를 社會體制로 간주할 때 그 部分을 下位體制(sub-system)라고 보며 그 下位體制도 다시 下位의 下位單位(sub-subsystem)로 構成된 것으로 보아 全體體制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社會를 社會體制로 定義할 수도 있고 社會體制를 하나의 社會로 理解할 수 있다면 그것은 行爲者間의 比較的 持續的이고 安定된 役割關係, 交互作用, 또는 다른 말로 해서 制度化된 役割類型이 전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社會 또는 社會體制와 같은 環境에 대하여 자체의 充足性이 높은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는 形態로 定義되고 있을 때 可能하다.¹²⁾

第二節 分析方法



社會體制的 概念은 파아슨스(T. Parsons)에 의해서 概念的 分析의 틀로 구축되었다.¹³⁾ 그는 한 社會體制가 維持될 수 있는 結果, 均衡 및 安定的 機能的 要求條件을 넷으로 설정하여 說明하고 있다.

첫째는 目的의 무엇이든지 간에 社會體制가 설정한 目的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活動을 操縱하는 手段과 目的의 관계도식으로서 目的達成(Goal-attainment)에 관한 機能的 要求이다.

11) Loc. cit.

12) 박영신, op. cit., p. 73.

13) T. Parsons, *Societies—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6), pp. 28~29 參照.

둘째는 社會體制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여러가지 資源과 施設을 供給해 주기 위한 環境의 이용까지도 포함하는 外部狀況에 대하여 適應 (Adaptation) 할 機能의 要求이다.

세째는 體制안의 各 單位를 연결시켜 충분히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結束의 水準을 設定하고 維持시키는 統合 (Integration)이라는 機能의 要求이다.

마지막 네째는 어느 特定の 社會體制 속에서 行爲者가 活動하고 參與할 때 지켜야 할 여러 規範과 要請이 다른 社會體制의 規範과 要請과 摩擦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類型維持 (Pattern-maintenance)와 役割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느 수준의 動機를 維持하고 社會體制의 여러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狀態의 變化를 統制하는 緊張調整 (Tension-management)을 포함하는 潛在性 (Latency)의 機能의 要求이다.¹⁴⁾

이러한 네개의 機能의 파라다임 (paradigm)과 關聯시켜 社會體制의 構造的 構成範疇 (structural categories)를 價值, 規範, 集合體, 役割로 구분하고 있다.¹⁵⁾ 價值는 社會體制의 類型維持, 規範은 統合의이고, 集合體는 社會體制를 위한 目的達成, 役割은 適應의이다. 社會體制의 구체적인 構造的 單位는 이 네가지 構成部分이 結合한 것이다. 그러나 이 네개의 機能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社會體制의 핵심은 統合的 下位體制이다. 왜냐하면 行動體制의 水準에서 社會體制는 統合的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에 社會體制 分析에 있어서는 社會體制가 그의 內的 統合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各별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파아슨스는 社會體制의 統合的 下位體制를 社會共同體 (societal community)라고

14) 예컨대, 目的達成 (G) 機能에는 政治 및 行政目標의 設定과 執行을 담당하기 위한 下位體制, 適應 (A) 機能에 生産을 담당하는 經濟的 活動을 위한 下位體制, 統合 (I) 機能에 法廷과 法律的 機關, 政黨 및 壓力團體 등의 下位體制, 類型維持와 緊張調整을 포함하는 潛在性 (L) 機能에 文化적·교육적 기관 즉 教會, 學校, 親族, 家族, 藝術機關 및 調査機關 등의 下位體制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4개의 기능적 조건이 충족되고 상호간의 유기적 작용으로 전체 社會체제가 구조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5) Ibid., p.19 參照.

부르고 그의 一般의 機能은 統一성과 凝集力을 가진 集團的 組織과 規範體制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 기능은 規範의 一貫성과 社會의 調和 및 協助를 뜻하는 社會秩序의 確立을 意味하며, 이러한 意味에서 콰아슨스는 統合的 下位體制를 規範으로서 法과 社會統制라고 보고 있다.¹⁶⁾ 社會體制的 핵심적 범주인 統合的 下位體制的 第一次的인 機能은 社會成員을 全體로서 또는 社會內的 여러 범주로 分化된 地位와 役割에 따라서 社會共同體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規制하는 것이다. 社會共同體에 대한 忠誠은 어느 社會에 있어서나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콰아슨스에 의하면, 忠誠은 下位社會體制的 統制 서열에서 가장 높은 位置에 있는 價置體制에 의해서 正統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社會共同體의 統合을 維持하는 規範은 價置體制의 制度化를 통해서 작용한다.¹⁷⁾

콰아슨스는 社會共同體의 成員을 序列的으로 구분하는 規範制度가 社會階層이라고 보고 있다. 社會階層은 社會成員의 地位와 役割을 規制하는 規範이 그 社會에서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진 制度이다. 社會階層의 制度化는 근본적인 不平等을 正當化함으로써 社會體制的 秩序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¹⁸⁾ 모든 社會는 平等과 不平等 사이에 어떠한 均衡을 制度化하고 있다.¹⁹⁾ 여기서 均衡은 體制가 衡平을 이루고 있는 狀態를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體制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지 않는 狀態가 均衡이다. 이러한 均衡維持의 기초로서 社會化的 機制(mechanism)를 들 수 있다.

社會化는 共通價値와 期待를 內面化하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 원초적 사회화(primary socialization)와 이차적 사회화(secondary soci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린이가 成長過程에서 價値를 習得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한 인간의 相互作用에서 相補的 期待를 학습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16) Ibid., pp.11~12.

17) Ibid., p.19.

18) 趙英彬, 「南北韓 社會文化 比較尺度 모델에 관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76), p.16.

19) T.Parsons, op. cit., p.47.

엄밀한 의미에서 어린이의 社會化 過程 역시 相互作用의 過程이다. 이때의 相互作用은 一方 通行的이다. 그 까닭은 어린이가 인간의 生物學的 特徵인 適應性和 感受性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依存性을 또한 갖고 있으며 社會化 施行者 (socializing agent)와 被社會化人 (socializee)의 관계에서 後者의 役割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이와는 달리 성인의 社會化 過程은 相互作用 그 自體와 같다. 이때에 相互作用에 參與하는 自我와 他者は 社會化 施行者도 될 수 있고 被社會化人이 되기도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兩者의 機能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인간은 社會化 過程 속에서 그 社會의 共通價値를 습득하고 이 共通價値에서 相互間의 役割에 의해 行動되기 때문에 社會化는 社會體制의 均衡維持에 중요한 機能을 담당한다. 그런데 모든 機制가 社會의 均衡維持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社會的 期待에 同調하지 않으려는 抵抗 즉 逸脫은 均衡狀態를 妨害 혹은 破壞하고자 하는 힘이다. 이러한 逸脫을 均衡回復 (re-equilibrating) 시키기 위해서 社會統制가 필요한 것이다. 파아슨스는 社會逸脫도 社會統制 機制와 社會化 過程에서의 公式教育을 통해 잘 통합되리라는 樂觀的인 견해를 表明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파아슨스의 社會體制論의 觀點에서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歷史的으로 單一民族으로서 共存해온 南北韓이 전혀 相異한 理念과 體制를 지니면서 40여년 동안 存續할 수 있는 社會體制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에 疑問點을 갖고, 南北韓의 體制的 特徵으로서 각각 權威主義와 全體主義的 性格이 社會體制 維持에 상당한 정도로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南北韓 社會의 體制的 特徵을 살펴보며,

둘째, 南北韓 社會體制가 均衡이 維持되어온 具體的 機制가 파아슨스가 提起한 것과 같이 네개의 機能要件 中에서도 統合的 下位體制라고 볼 때 社會階層과 社會統制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統制的 機制와 相關性이 있다고 보는 各種 社會

20) 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1951), p.215.

逸脫은 어떠한 類型으로 派生되고 있는가를 論議한 다음,

세째, 社會體制의 均衡維持에 重要한 機能을 擔當한다고 보는 社會化에 있어서는 社會化 目標과 社會化 媒介體間에 南北韓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檢討하고자 한다.

本 研究는 주로 그동안 國內外 共產圈 問題 혹은 北韓問題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진 論文과 사전류, 정부기관에서 간행된 자료 등에 依存했고 北韓에서 간행된 자료는 사전류나 선행연구논문에서 인용된 것을 참고로 하는 2次 資料에 의했다.

南北韓 社會體制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개개자료의 나열을 통한 단순한 比較보다는 單一民族으로서 소유했던 共通價値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 이질적인 면 — 에 力點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敘述的으로 比較하되 平面的 敘述보다는 加급적이면 그 特徵이나 基本性格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比較에 있어서도 양쪽의 社會體制에 反映될 結果에 着점을 두었고 客觀的으로 綜合評價하고자 努力하였다.



第三章 南北韓 社會의 體制的 特徵

第一節 南韓 社會體制的 特徵

— 權威主義의 性格을 中心으로 —

우리의 歷史는 하나의 社會體制 속에 살아왔다. 심지어 36年間이라는 日帝下에서도 이점에서는 變化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解放과 더불어 우리의 社會生活 空間은 美·蘇의 兩國軍의 進駐로 인해 分斷된후, 6.25 戰爭이 理念的 硬直性을 加速化시키면서 南北韓 社會는 자기 상당한 變化를 일으켰다.

解放後 統一된 獨立國家의 實現이 외면당한 채 他律的으로 國土分斷이 이루어진 후 南北韓 社會는 새로운 政治秩序를 樹立하는 것에서부터 社會經濟的 領域에 近代性을 導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甚大한 變化를 追求해 왔다. 즉 分斷된 후 南北韓 社會는 자기 獨自의인 方向에서 變化를 追求해 왔으며 그 결과 서로간에 많은 異質的인 要素들을 內包하게 되었다.

政治的으로는 南北韓이 별개의 單位로 形成되었으며 社會經濟的으로도 자기 다른 體制를 維持시켜 옴으로써 서로간에 異質的인 文化를 심화시켜 놓았고 그 결과 民族의 同質性을 파괴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美軍의 接령하에 있던 南韓은 軍政의 實施와 더불어 自由民主主義를 政治理念으로 하는 體制樹立의 方向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西歐式 自由民主主義 體制란 職業的으로 自由로운 中産層의 活動을 前提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南韓은 그 社會的 基層을 도외시한 채 外廓的인 制度의 模倣에만 급급함으로써 부질없는 自由主義와 個人主義的 社會風潮만 蔓延시켰을 뿐 制度의 土着化에는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다.²¹⁾ 이는 西歐가 經驗한 長期에 걸친 資本主義的 成長과 自由主義의 思想的 基盤 그리고 民主參政의 歷史 中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채 解放을 맞았고, 輸入된 制

21) 都興烈, 「南北韓 社會文化 力量比較」 (서울: 國土統一院, 1977), pp.27~28.

度로써 自由民主主義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를 단순히 特定한 制度的 裝置로 理解하는 경우엔 그 裝置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아무런 文化的 遺産과 經濟社會的 基盤도 갖추지 못한 채 그 制度를 導入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歷史적으로 뿌리가 깊은 이땅의 權威主義的 政治文化가 自由民主主義의 制度化에 逆機能的 要因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이밖에도 分斷狀況에서 緣由되는 慢性化된 統合危機는 政治社會內에 劃一的 社會統合 裝置를 強化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 發達에 큰 짐이 되었다.²²⁾

이를 좀더 具體적으로 살펴보면²³⁾ 李承晩政府는 反共政策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右派勢力을 중심으로 體制確立과 社會變化를 추구해 나갔다. 그러나 점차 個人權威에 의존하는 權威主義的 體制로 전락함으로써 自由黨政府는 4.19 革命을 계기로 몰락하게 되었다. 그후 民主黨 政權期를 통해 自由民主主義의 理想을 政治體制에 反映해야 한다는 要求가 크게 增大되었으나 이를 制度的으로 흡수할 수 있는 政治體制의 能力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일종의 政治的 危機가 나타났으며 그러한 가운데 5.16 군부 쿠데타를 통해 共和黨政府가 탄생하게 되었다. 共和黨政府는 현실적으로 自律的인 體制의 能力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經濟建設 등 급속한 近代化의 目標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적어도 理念的으로 民主主義的 屬性을 內面化시켜 國家單位的 自律性을 確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第三共和國에 들어서면서 韓國의 政治體制는 自由民主主義의 보편적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特殊한 韓國的 狀況에 현실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價値·制度 및 엘리트集團 등의 創出에 집중했다. 즉 共和黨政府는 北韓과 對峙하고 있는 상황에서 安保와 安定的 重要性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效率性에 기초한 體制의 發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維新體制의 채택과 더불어 權力이 지나치게 個人中心으로 獨占化된 반면 급격한 社會變化에 따라 나타난 多元的 社會構造의 要求와 기대에 적응하기 위한 能力을 상실함으로써 朴正熙

22) 安秉永, “自由民主主義의 흐름과 韓國의 현실”, 「新東亞」 통권 323 호 (1986년 8월), p. 256.

23) 申正鉉, op.cit., pp. 209 ~ 210.

政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흔히 政權의 長期化에 수반될 수 있는 政治體制의 적응력 상실이 韓國에 있어 政治의 斷絶現象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서 잠시 權威主義的이라는 概念에 대해서 살펴보면, 多元主義가 制限되어 있고 정교한 指導理念은 없으면서도 특이한 제나름의 心性들(mentalities)을 지니며, 광범위하고 확산적이든, 강도높고 집약적이든간에 政治的 動員이란 별로 없지만 한 사람의 指導者나 소수의 개인들 集團이 公式的으로는 제대로 規定되어 있지 않은 限界 또는 範圍 안에서 權力을 行使하는 政治體制를 말한다.²⁴⁾ 여기서 한 사람의 指導者는 政策決定을 社會에 강요하고 그것을 被治者에게 명령하나 그것은 주로 統治構造와 관련된 기능이지 共同社會全體의 사회질서나 경제적 생활을 지배하거나 또는 사회의 文化的·精神的 態度를 그 자신이 좋아하는 類型에 따라서 변형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權威主義的 統治體制에 있어서는 議會와 法院 등 분립된 국가기관이 형식상 존재하지만 이들 기관은 唯一의 權力保有者의 統制에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일의 權力保有者와 충돌할 때에는 실질상 양보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또 權威主義 政治體制는 거의 언제나 거기에 알맞는 成文憲法을 규정하고 그 憲法規範도 실제로 의도하는 權力構造에 적응시키고 있기 때문에 法治國家의 原則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被治者의 基本權은 政治權力 自體의 목적의식과 그 행사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을 받는다.

權威主義體制도 언제나 이데올로기를 가지나 그것은 統一的으로 形成된 것은 아니며 現代權威主義體制의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實用的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는 것은 民族主義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²⁵⁾

이와같은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와 실제 政治現實로서의 南韓 政治體制가 공통으로

24)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F. I. Greenstein and N. Polsby(eds.), *Macropolitical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3.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5), p.264.

25) 金雲泰, 「政治學 原論」(서울:博英社, 1978), pp.420~421.

갖는 요인을 살펴보면,²⁶⁾

첫째, 反自由主義的 性向 (anti-liberalism)이다. 적어도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人權이나 民權을 가능한 制限하는 데 초점을 둬으로써 國民의 입장에서 보면 自由의 缺如현상을 낳게 된다. 이런 현상은 朴政權下 이후로 더욱 심화된 셈이다.

둘째, 反議會主義的 性向 (anti-parliamentarianism)이다. 議會自體가 存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議會가 주어진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권자와 그 주변 人物들에게 議會가 긍정적인 機能보다는 부정적인 機構로 돋보임으로써 자칫하면 집권자와 집권당의 侍女化의 가능성이 짙다. 南韓의 경우 李政權末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朴政權下 이후로 고질화·만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합주의 (corporatism)적 경향이다. 이는 통치기구로서의 國家와 社會集團과의 관계에 있어서 國家가 社會集團 構造를 결정하고 보조지원하며 인사 및 관리를 규제하는 국가주도형 조합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조합주의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위 두 가지 다른 양상, 즉 다원주의 (pluralism)와 黨主義 (partism)의 定義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경쟁적으로 그리고 非위계적 (nonhierarchical)으로 利益이 대변될 때만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統制가 극히 制限되어 있고 정

26) 이하의 論議는, 梁性喆, “南北韓 政治體制 分析模型 — 序說的 試圖 —”, 「한국정치학 회보」, 第 20 輯 (서울: 韓國政治學會, 1986), pp.101~104 參照.

이와 관련하여 崔章集 教授는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는 대체로 네 가지 요소 내지는 변수들의 결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 국가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국가의 하부구조가 강고하게 발달하였다.

둘째,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일반 국민들이 중앙의 국가권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고도의 “國家性”의 전통을 지녀왔다.

셋째, 세계경제체제 및 국가자본에 대한 고도의 의존을 통하여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부분의 억압을 요구하게 되었다.

넷째, 산업화의 기간의 템포가 지극히 짧고 빨랐으므로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정치 세력 면에서 민중부분은 매우 약하였다. (崔章集, op. cit., pp.279~280.)

부의 정책결정은 정부 주도하의 一方的인 것이 아니고 여러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타협과 합의의 産物이 된다. 反面 黨主義는 당에 의해서 창조된 노동단체, 직업동맹들이 당의 지도하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은 곧 정부이고 또 이익집단이라는, 즉 당의 이익은 곧 다른 당 산하의 모든 기구와 단체의 이익과 一致한다는 결론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黨主義社會에선 당이 바로 권력과 통치의 핵심이라면, 多元主義는 政府가 타협자 (compromiser)요, 조합주의에선 정부가 통제자 (controller)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합주의와 黨主義 두 가지의 근본적 차이는 첫째로 黨의 역할이다. 前者의 경우는 당이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통치 侍女일 뿐인데 반해, 後者の 경우는 당이 정부 및 모든 이익집단을 통제·통치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경제 私영역의 存在 여부다. 前者의 경우는 그러한 私영역이 허용되는 反面, 後者の 경우는 적어도 이론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以上에서 보면 現 南韓政治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제반 사회 이익집단간의 관계는 국가주도형 조합주의에 가깝다고 하겠다.

네째, 軍政治介入 및 軍政性 (praetorianism)이다. 군정치개입의 이유로서 內生的·外生的 요인이 있고 또 軍人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 나타나는 참여군인의 言行不一致에서 오는 良心의 위기 (crisis of conscience), 軍生活·政治參與라는 직업 전환에서 오는 一體感의 위기 (crisis of identity), 권력을 위한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장악이나 하는 권력목적·수단의 전도에서 오는 이념의 위기 (crisis of ideology)가 있다. 또 軍의 참여의 性格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정자적 (moderators)일 수도, 後見人的 (guardians)일 수도, 아니면 支配者的 (rulers)일 수도 있으며 그 관여의 성격이 個人中心的 (personal), 少數집단형 (oligarchical), 조합주의적 (corporatist)일 수도 있겠다. 南韓의 경우는 위에서 제기한 군정치개입의 내생적·외생적 요인을 함축하고 있으며 軍이 政治介入을 했을 때의 세 가지 위기 역시 內在한다고 볼 수 있다. 군정치개입의 역할은 軍政期間 동안 조정자적·후견인적·支配者的 性格을 띤다고 볼 수 있고 그 관여의 성격, 즉 개인중심적·과두적·조합주의적 양상도 적어도 朴政

權下 이후에 表出해 온 셈이다.

이와같은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의 諸要素로 인해 社會도 다분히 位階序列의 權威關係, 資源의 集權化, 閉鎖的 決定行使, 限定된 參與와 表出, 命令에 의한 動員, 硬直된 信念과 關係, 組合主義的 志向을 組織原理의 特性으로 드러내는 構造를 이루게 된다.²⁷⁾ 따라서 權威主義的 社會構造 下에서는 社會組織의 位階序列의 原理와 垂直的 關係, 秩序를 強調하며, 位階序列의 頂上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혹은 社會의 엘리트들이 資源을 所有하든가 統制하든가 分配하는 정도가 높음을 뜻하기 때문에 社會成員들에 대한 統制와 階層形成이 다분히 制度的인 틀 속에서 人爲的일 수가 있으며 資源의 再分配 기회가 制限되어 社會移動이 鈍化 혹은 硬直性을 띠게 되어 각종 逸脫이 發生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社會化 過程에서도 權威主義的 퍼스널리티를 싹트게 하여 지배-부종, 강-약, 지도자-추종자, 지배자-피지배자 같은 兩分的 關係意識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권력·획·용맹·남성다움·군셈 등의 가치를 떠받드는 反面 主觀성, 창의성, 상상력, 연민, 동정, 여린마음 같은 性向을 앞보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러한 權威主義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理念型인 만큼 歷史的·現實的으로 存在하는 構造的 單位, 社會 또는 政權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抽象的·精神的 構成物이라고²⁹⁾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憲法 第一條에 明示하고 있어서, 解放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나 價値를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동안의 체제적 특징이 權威主義的 體制에로 전환하는 過程

27) 金璟東,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사회갈등 — 사회의 발전에 대한 함의 —”,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5), p.362.

28) Ibid., p.365.

權威主義的 性格은 첫째, 사람을 상하관계의 서열에 놓고 우열을 가리는 사고방식이다. 둘째, 강자에 대한 무조건 부종과 약자에 대한 공격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양분법적 판단과 스테레오타이프적 사고를 갖는다. (高永復, “自由民主主義를 위한 社會的 조건,” 「신동아」 통권 323호 (1986. 8), p.269.)

29) Loc. cit.

을 겪었고,³⁰⁾ 이런 점에서 維新體制 以後 現在까지의 政治體制는 관료권위주의 체제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的 特性을 많이 띠는 體制라 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³¹⁾ 할 것이다.

第二節 北韓 社會體制的 特徵

— 全體主義的 性格을 中心으로 —

北韓은 소련군의 의도한 바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을 目標로 하는 人民民主主義 政權을 樹立하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規定한 바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獨制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特殊한 형태의 民主主義”를 의미했다.³²⁾ 따라서 北韓도 共產主義 革命理論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的 樹立에 重點을 두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³³⁾ 北韓의 政治體制는 1946년 2월 8일에 조직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人民民主主義의 獨裁政權임을 선언한 이래 金日成의 唯一獨裁體制를 수립하는 過程으로 變化하였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소위 「主體」를 내세운 이래 이를 中心으로 金日成의 獨裁體制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金日成이 「主體」를 처음 언급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한 2년 후인 1955年末이었고 이것을 對外的으로 自主宣言으로 연결시켜 내세운 것은 中蘇紛爭이 점차 격화되었던 1966년이었다. 비교적 證證하는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獨自的인 路線을 추구해온 金日成政權은 흔히 全體主義 支配體制에서 나타나는 動員體制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北韓住民들에 대한 철저한 統制와 조직화를 감행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北韓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自力更生의

30) 申正鉉, op.cit., p.210.

31) 崔章集, “自由民主主義나, 官僚的 權威主義나”, 「民族知性」 통권 16호 (1987.6), p.279. 1961년부터 1981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22인의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실시된, 28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적 특징의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7가지로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첫번째로 權威主義를 들고 있다. (李知勳, 韓國政治文化和 政治發展, 「民族知性」 통권 4호 (1986.6), pp.128 ~ 129 참조.)

32)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3), pp.533 ~ 534. 申正鉉, op. cit., p.209 再引用.

33) 申正鉉, op. cit., pp.210 ~ 211.

革命精神을 강조하면서 千里馬運動이나 靑山里運動 등과 같은 大衆路線政策을 추구했다. 그리고 勞動黨을 중심으로한 一黨獨裁體制 下에서 金日成은 教條的인 宣傳이나 教育을 통해 철저한 個人偶像化政策을 실시하여 北韓全域을 一人 支配下의 全體主義 國家로 변모시켰다.

여기서 全體主義的 獨裁란 獨裁者 1人에 의하여 영도되는 單一大衆政黨, 官制이 데올로기, 폭력적 警察統制制度, 黨에 의한 經濟의 中央集權的 統制, 大衆화된 通信手段의 獨占, 能率的인 모든 무기의 獨占 등의 속성을 條件으로 하여 社會統制의 全體性을 追求하는 政治體制를 말한다.³⁴⁾ 이러한 全體主義體制的 特性으로서 린즈(J. Linz)는 ①이데올로기 ②單一大衆 政黨 ③여타 動員組織 ④一人 또는 少數에 集中된 權力이 유권층에게 책임을 지지않고 그것을 制度的이고 平和的인 手段으로 박탈할 수도 없는 體制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⁵⁾ 이들이 權威主義體制的 特徵과 다른 점은 ①完全한 統一體는 아니지만 일원적(monistic)인 權力的 중심이 있고, ②獨占的, 自律的 그리고 다소간 知的으로 세련된 이데올로기가 있고, ③政治的·集團的·社會的인 과업에 市民의 參與와 活動的인 動員은 單一政黨과 많은 獨占的인 2次 集團을 통해서 격려되고 보상받으며 연결된다³⁶⁾는 것 등이다. 이것을 다시 세 가지 次元으로 區分해서 살펴보면³⁷⁾

體制的 次元에서 權威主義는 權力的 不完全 獨占과 相對性, 統制的 制限性 등 不完全性을 나타낸다. 權威主義 政治秩序에서의 統制는 政治·經濟·社會 全盤에 걸친 완전한 統制라기보다는 政治統制에만 주로 국한된다. 全體主義는 權力的 절대성, 獨점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따라서 統制的 無制限性을 보이며 적어도 理想型(Ideal

34) C. J. Friedrich and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k A. Praeger, 1964), p.9.

35) J. Linz, op. cit., p.387.

36)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Macropolitical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3.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p.191, 金恒元, “北韓政治體系的 特殊性”, 「이데올로기 연구논총」 제3집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 1985), p.68 再引用.

37) 梁性喆, op. cit., pp.100~101.

type) 으로서는 黨의 軍政, 각종 사회단체, 대중매체, 經濟의 統制 등 一元化를 뜻한다. 따라서 全體主義 體制下에서는 적어도 理想型을 전제한다면 인권, 헌정, 자유의 不在, 반대당, 세력, 조직의 不在, 독립적인 사회조직, 단체활동의 不在, 개인의 私영역, 私的 소유나 활동의 不在를 그 체제적 특징으로 하고 權威主義 體制下에서는 上記한 것들의 不在 현상이라기보다는 缺如 현상을 뜻하게 된다.

理想的 次元에서 權威主義는 理想을 단순히 실현·실천하려는 희망 사항이나 이상에 그친다. 全體主義는 집권당의 이념의 독점화, 신성화, 종교화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념이 神話的·救世主的·終末論的인 양상을 포함한다.

心性的인 次元에서는 權威主義的 人間과 全體主義的 人間이 모두 열광, 수단의 사용, 정치스타일, 정치적·심리적 완고성 등 유사점을 보인다. 善惡, 正邪, 黑白論理 등 소위 불명확성의 불관용, 현실사회, 현실정치로부터의 소외,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인간이나 집단의 不信性向 등 類似性을 갖는다.

이와같은 全體主義的 政治體制的 特性이 北韓에서는 어떤 면에서 發見되는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첫째, 金日成 1人 體制的 정당화와 합리화를 위해 唯一하게 공인되고 있는 主體思想이라는 理想的 側面이다. 北韓政權의 樹立時 統治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1955年末 金日成은 잠재적으로 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인, 「主體」의 確立을 외치면서 소련의 경험을 朝鮮實情에 고려함이 없이 통째로 삼키려는 形式主義·事大主義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것이 北韓政權의 첫번째 이데올로기 세신 작업이다. 1972年 北韓統治 이데올로기의 體系化 作業은 이미 굳어진 金日成 唯一支配를 합리화하고 장기간의 權力獨占이 만들어낸 個人權威의 神格化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北韓社會 生活에서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는 金日成의 統治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金日成 主體思想은 마르크시즘의 全體主義 要素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思想의 哲學的 基礎부터

38) 이하의 論議는, 金恒元, op. cit., pp.69 ~ 75 參照.

구체적 行動領域에 이르기까지 새 思想體系의 定立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主體思想은 人間中心主義 世界觀, 勤勞大衆 集團主義, 絶對主義의 세 가지를 中核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생각을 人民大衆에게 注入하여 意識改造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1人 支配體制를 영속화시키려는 意識的 努力의 표현이 곧 金日成 主體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라 본다.

둘째, 超憲法的인 權力을 행사하고 있는 黨의 側面이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權力의 一元的 중심을 지향하는 경향, 그리고 大衆參與와 動員의 강조로부터 유래하는 全體主義 政治體系의 유일한 징후는 全體主義 政黨, 그것에 종속된 諸組織과 構成員, 그리고 社會에서 그들이 행하는 기능 속에서 나타난다. 北韓은 黨과 國家와의 관계에서 外形上 三權分立 體制인 最高人民會議(立法機關),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行政府) 및 中央裁判所(司法府)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朝鮮勞動黨의 一黨獨裁體制에 지나지 않는다. 憲法上으로는 最高人民會議은 最高主權機關이며, 유일한 立法機關이라 明示되어 있으나 超憲法的 權力인 黨의 領導가 모든 國家機關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動員體制面이다. 北韓은 黨과 行政系統을 통해서 動員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黨은 主體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로 黨員을 組織하고 革命家로 지도 육성하여, 이 黨員들로 하여금 대중들을 직접 統制 動員하게 된다. 黨에 의한 감시체계로는 당 중앙위원회 점열위원회가 있고, 道(직할시)와 市(구역)·郡당위원회에까지 점열위원회를 두어 당원은 물론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行政系統의 동원조직 체계는 中央人民委員會 系統을 통하여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동원하는 것 외에 公安機關으로 社會安全部(社會安全員)와 國家政治保衛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動員手段으로서는 強制的 手段으로, 監視體系, 生活의 統制, 51個 階層區分, 숙청 등이고, 規範的 手段으로, 政治教育, 群衆路線이며, 功利的 手段으로 獨立採算制, 分組管理制, 賞勳制度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복합적인 구조로 活用되고 있다. 北韓政權은 대중들의 모든 生活領域에 빈틈없이 침투하여 體制의 發展目標의 成就를 위하여 이들을 동원한다. 이러한 政治

的意志의 下向의 投射 내지 大衆動員의 媒介의 構造變數가 다른아닌 이른바 大衆的 外廓團體이다. 결국 北韓共產政權의 動員체제 구조와 動員양태의 특징이 他共產主義國家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그 體制가 추구하고 있는 目標가 社會, 經濟的 構造의 변화뿐만 아니라 人間性的 개조까지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動員 體制의 基本 目標라 할 수 있는 經濟發展보다는 오히려 金日成 唯一體系 및 世襲 體系 確立과 赤化統一이라는 似而非 大衆目標을 추구하고 있는 全體主義的 軍事動員 體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以上과 같은 北韓의 全體主義的 政治體制 要素로 인해 社會體制에 과급되는 결과도 多大할 것이다. 왜냐하면 社會 公公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諸活動은 모두 社會를 위한 구속력있는 政策을 창안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方法과 關係성이 있는 것으로 다소간 유대성과 聯關性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³⁹⁾

특히, 北韓은 社會主義 憲法 第49條에 「北韓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서 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第12章 4條에는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全體主義的 一黨體制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 個人에 의한 일당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一方的인 階層區分과 統制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따른 逸脫行爲는 反作用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社會化 過程에도 그들 集團의 존속을 위해 理念的 思想教育이 강화될 것이다.

39) 金雲泰, op. cit., p.40.

第四章 南北韓 社會階層과 統制 比較

第一節 社會階層

모든 社會成員은 각각 일정한 社會集團에 소속되어 거기에서 일정한 社會的 地位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된 役割을 수행하면서 생활한다. 사람들이 점유하는 社會的 地位와 그들이 수행하는 社會的 役割은 他者 또는 自我에 의해서 上下 또는 優劣의 序位로 평가되어지는 속성을 지닌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의 社會的 地位, 또는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社會的 役割의 수행자를 한데 묶어서 우리는 그것을 社會階層이라 부른다.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上下 또는 優劣의 관계에 있는 여러 階層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社會를 階層化된 社會라고 부르고 社會의 그러한 構造的 側面을 階層構造라고 말한다.⁴⁰⁾ 다시 말해서 동일한 또는 비슷한 社會的 地位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範疇를 각각 階層이라고 한다면 한 社會의 階層構造는 높고 낮은 계층들의 位階的 排列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近代的 社會階層 현상은 사람이나 관심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다.⁴²⁾

하나는 社會를 그 성원의 각종 屬性, 이를테면 직업, 재산, 수입, 학력, 직책 등에 따라서 그들을 몇개의 範疇로 구획, 그 각각을 階層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階層은 다분히 조작적이고 방편적인 概念이라고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통계적 概念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흔히 階級이라고 불리우는 社會範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때 階級은 직업, 재산, 수입 등에 의해서 표

40) 金彩潤, “社會階層論”, 李相禧 編著, 「現代社會論」 (서울: 서울대출판부, 1979), p.235.

41) 李璋鉉外 共著, 「社會學의 理解」 (서울: 博英社, 1982), p.256.

42) 金彩潤, “韓國社會階層의 構造와 變動”,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 (서울: 民音社, 1980), p.98.

시되는 經濟的 財貨, 또는 기회의 배분상태에서 기인하는 社會的 勢力的 크기에 의해서 식별되는 社會範疇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 각 階級の 成員들은 特定 階級の 의 뚜렷한 소속의식 또는 同一階級成員으로서의 同類意識을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特定 階級の 成員들은 財貨 또는 經濟的인 기회를 둘러싸고 다른 階級에 對하여 對立 또는 抗爭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런 뜻에서 階級은 실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現代社會의 階層을 論議함에 있어서 階級的 시각을 취하느냐 또는 階層的 시각을 취하느냐는 階層의 접근 목적에 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 社會階層을 論議함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의 階層概念에 유의하여 階級構造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는 階層과 階級은 分析的으로 구별되는 範疇이기는 하지만⁴³⁾ 兩者間에 긴밀한 相關性이 있음을⁴⁴⁾ 고려했기 때문이다.

1. 階層構造

경험적으로 존재해온 이제까지의 모든 人類 社會에서는 비록 그 程度와 內容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形態로든지 成員들 사이에 社會的 不平等이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도 成員들이 완전한 社會的 平等을 누리는 社會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現代에 와서 일반적으로 階層의 測定變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직업, 학력, 재산, 소득, 가문, 생활양식 등이다. 이러한 變數는 西歐資本主義 世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西歐世界와 社會主義 諸國과의 階層體系는 여러가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階層原理에 큰 차이가 있다. 西歐世界에서는 政治權力의 집중현상이 덜하고 經濟 또한 덜 집중적인 상태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經濟力 특히 市場에서의 地位가 階層化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反面에 소련을 위시

43) 崔泰龍, “階級的 操作的 區分과 몇 가지 特性”, 『社會科學研究』 제 3 집 (慶尙大 社會科學研究所, 1985), p.52.

44) 金彩潤, “社會階層論”, op. cit., p.236.

한 社會主義 諸國에서는 階層은 무엇보다도 政治的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市場의 힘은 그렇게 큰 우선권이냐 自律權을 가지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社會的 不平等의 形態는 무엇보다도 共產黨의 政策的 意圖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⁴⁵⁾

이런 점에 있어서 南北韓도 전혀 相異한 階層構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南韓社會의 階層構造는 해방후에 資本主義 經濟가 도입되고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숙련노동직, 비숙련노동직 등이 크게 확대되어감에 따라 土地의 所有關係뿐 아니라 자본, 지식, 기술, 노동 등의 다양한 生産手段을 중심으로 보다 복잡한 階層構造로 개편되어져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産業化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등의 직업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새로운 中産層의 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급속한 都市化에 의해서 農民의 상당한 비율이 도시에 있어서의 판매직, 노동직, 서비스직으로 轉換되는 직업구조상의 중대한 개편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南韓階層構造는 행정엘리트, 政治엘리트, 經濟엘리트, 知識엘리트(언론, 예술, 과학, 교육, 종교 등 지식분야의 엘리트로서 高額所得者) 등으로 구성되는 上層階級과 기타의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및 중소기업인, 中農 등으로 구성되는 中産階級 그리고 숙련, 비숙련노동직과 영세상공업자, 영세농민 등으로 구성되는 下層階級으로 나뉘어지는 階層構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은 階層構造下에서 두드러진 特徵은 中産階級の 확대라 할 수 있다.

中産階級을 신중간계급(사무직 종사자)과 구중간계급(자영업자), 그리고 독립자영농들로 규정해 보면, <表1>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에 이미 中産階級の 비중은 5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中産層의 비율은 1980년에는 61.7%까지

45)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서울:北韓研究所, 1977), p.137.

46) 林煥燮, “韓國社會의 構造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 (서울:韓國社會科學研究所, 1980), p.270.

확대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⁴⁷⁾

<表1> 남한 계층구조의 변화

계급구분	1970	1975	1980
중상계급	1.3	1.2	1.8
신중간계급	14.2	15.7	17.7
구중간계급	14.8	14.5	20.8
근로계급	16.9	19.9	22.6
도시하류계급	8.0	7.5	5.9
독립자영농	28.0	28.2	23.2
농촌하류계급	16.7	12.9	8.1
합계 (N)	100.0 (59,332)	100.0 (61,715)	100.0 (154,630)

* 구중간계급에는 자영전문직, 자영상인, 자영서비스직, 자영기능인 등을 포함시킴.

출처: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0).

工業化에 따라 農村의 독립자영농의 비율은 감소해 가고 있으나 그 대신 도시의 자영업자들과 신중간계급은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의해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 나갈 것이다.⁴⁸⁾ 그 -

47) 홍두승,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 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현대사회연구소, 1983), p.67.

48) 金學俊外 7人 共著, 「南北의 生活相 - 그 삶의 現住所」 (서울:博英社, 1986), p.42.

例로 近代의 職業範疇로서의 화이트 칼라는 1960 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近代化 過程과 더불어 꾸준하게 팽창하였다. 1970 년에서 1980 년까지 10 년간 全國 就業者 數는 약 26 %가 증가한 반면 화이트칼라는 75 %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국 취업자중 화이트칼라가 차지하는 비율도 14.6 %에서 20.3 %로 증가하였다.⁴⁹⁾

이와 같은 階層構造의 變化는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中産層 歸屬意識, 즉 中流意識을 갖게 하고 있다. 1987 년 2 월 27 일부터 3 월 1 일까지 실시된 어느 언론기관의 國民意識 여론조사에 따르면, 全體應答者의 76.7 %가 中産層 歸屬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⁵⁰⁾

南韓의 階層構造에 있어서 中産層의 擴大와 中産層 歸屬意識의 增大는 南韓社會를 점차 中産層 中心의 社會로 變化시키고 있다. 비록 中産層에의 歸屬感이 곧 中間層의 實質的 增大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⁵¹⁾ 하더라도 中産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社會는 安定되고 잘 統合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中産層이 社會統合 또는 社會的 均衡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될 存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韓社會가 政治的 民主主義와 市民社會의 秩序를 확립해 나아갈 구조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건전한 中産層의 보호와 育成이 요청된다 하겠다.

北韓의 경우는 黨에 대한 忠誠心과 社會出身成分의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社會的 昇進과 進級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社會的 威信과 特權이 부여됨으로써 일종의 特權階級을 形成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北韓은 解放以後 數次에 걸쳐 成分調查事業 - 1958 년 중앙집중 지도사업, 1960 년 주민등록사

49) 정근식, “화이트칼라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사회학연구회편, 「한국사회학연구」 제 7 집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1984), p.85.

50) 東亞日報, 1987年 4月3日字 6면참조.
여기에 따르면, 「귀하의 생활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8.4%가 중류, 38.3%가 중하류라고 응답했다.

51) 金彩濶, “韓國社會階層의 構造와 變動”, op. cit., p.115.

업,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주민 재등록사업 - 을 실시하여 住民들을 成分別로 엄격히 區分하고 階層別 職種 職位를 맡기고 있다.⁵²⁾

北韓이 주장하는 社會主義的 改造는 階層構造의 변혁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바로 住民統制의 계열화를 뜻하게 된다.⁵³⁾ 北韓 헌법 第6條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⁵⁴⁾라고 명시하여 마치 北韓社會에서는 階層現象이 없고 또 階級間的 對立도 전혀 없는 理想社會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政治的이며 社會的 機能에 준하여 特權階級の 構造形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北韓社會의 階層分類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黨性이며,⁵⁵⁾ ① 믿을만한 개인들로 구성된 核心 (core)階層, ② 믿을 수 없는 개인들로 구성된 基本 (basic)階層, ③ 모두 의심스럽고 불신받는 개인들로 구성된 複雜 (complicated)階層⁵⁶⁾으로 三分하고 있다. (表2 參照)

이와 같은 3大 階層區分은 1966年 4月부터 1967年 3月末까지 실시한 住民登錄事業 시행결과를 토대로 1967년부터 1971年末까지 全住民을 政治的 成分에 따라 51個 階層으로 더욱 세분화하였다.⁵⁷⁾

52)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 (서울: 平和統一研究所, 1966), p.76.

53) 國土統一院, 「南北韓社會文化 現況比較」 (서울: 國土통일원, 1980), p.22.

54) 朝鮮勞動黨 通信社, 「朝鮮中央年鑑」 (평양: 朝鮮로동당, 1974),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op. cit., pp.131 ~ 132 再引用.

55) 李昌洙, “社會政策과 體制發展”, 김준엽·스칼라피노 공역,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5), p.223.

56) N.C.Nahm, NORTH KOREA (Michiga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8), p.95.

57)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op. cit., p.155.

<表 2> 北韓의 계층구조

구 분	대 상	인구구성 비율	대 우
핵심 계층 (지배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전사 유가족 ○ 피살·전사자가족 ○ 당·행정간부가족 ○ 군간부가족 ※ 공산체제 통치계층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권·군간부 등용 ○ 타계층과 분리 특혜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기본 계층 (동요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노동자, 농민가족 ○ 일반사무원가족 ※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존중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하급간부 및 기 술자 진출 ○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복잡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자본가 계급 ○ 일제공직자·종교인 가족 ○ 월남·부역자·포로 가족 ○ 숙청·범죄자 가족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중노동에 종사 ○ 입학·진학·입당봉쇄 탄압 ○ 제재·감시·교양 포섭 대상으로 구분 조치 ○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국토통일원, 1986)

以上에서 北韓은 階層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權力構造와 體制를 유지키 위한 社會的 機能에 의한 것으로서 權力構造의 接近度라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成分이 가미됨으로써 單元的인 階層要素에 동요가 생기게 된다면 社會秩序에 혼란이 야

기될 위험성이 內包되어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려는 統制的 方案에 의해 形成되는 階層構造라 하겠다.⁵⁸⁾

2. 階層構造의 特徵

여기서는 前述한 階層構造를 가지고 南北韓間의 그 特徵을 比較해 보고자 한다.⁵⁹⁾

첫째, 南韓의 社會構造는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階層構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학력, 가문, 주거, 생활양식 등에 의한 階層分類가 가능하다. 그러나 北韓의 社會構造는 政治的으로 區分된 階層적이며, 경직된 신분제적 階層構造를 가지고 있다. 즉 北韓은 階層決定要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성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성분이란 일반적으로 사상적 성향을 뜻하는 것이나 北韓에서는 住民 各者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政治的 標準이 되고 있다.⁶⁰⁾ 北韓의 階層構造는 個人의 노력보다는 出身性分과 黨性에 의한 階層分類가 있을 뿐이다.

둘째, 南韓에서는 서민층의 生活向上과 財産形成을 위해서 중점적 시책을 펴고 있는 반면 北韓에서는 일단 思想的으로 믿을 수 없다고 규정된 소위 複雜階層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세분하여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즉 北韓에서는 複雜階層에 속하는 자가 바로 敵對階層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4가지 階層 - 포섭대상, 교양 개조대상, 고립대상, 독재대상 - 으로 세분화하여 각 階層別로 한정된 사회범위 안에서 社會的 地位와 役割을 부여받게 된다.

세째, 職業構造에 있어서 南韓에서는 多樣하지만 北韓에 있어서 공식적인 직업통

58) 李昌株, op. cit., p.225.

59) 이하의 論議는, 國土統一院, 「南北韓社會文化 現況比較」, op. cit., pp.23~28 參照.

60) 金容龜, 「北韓住民의 階層別 生活分析 - 敵對階層 中心으로 -」 (서울: 國土統一院, 1977), p.65.

제의 분류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北韓이 社會의 階級的 分化를 否定하고 職業에 따른 포괄적 기능분류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사무원, 농업협동조합원, 군인 등이 그것인데, 이처럼 직업분류를 單純化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말살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네째, 職業選擇에 있어서 南韓의 경우, 직업은 개성의 발휘나 자기실현의 기회로서 선택기회나 전업의 自由가 전적으로 個人에게 있는데 반해, 北韓에 있어서 직업은 희생을 감수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 國家計劃機構에 일임되고 있다. 北韓 헌법 第 56 條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公民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당국이며 그들이 地位를 부여하고,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은 副次的이며 임의로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⁶¹⁾

다섯째, 최근들어 南韓에서는 中流階層에의 歸屬意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中產層이 資本階級과 勞動階級을 상호 견제하며 조정하는 社會統合에의 주도세력이 되고 있는 反面, 北韓은 中間階層을 모두 勞動階級化하는 階級政策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보면, 「全人民의 平等社會」를 외치는 北韓社會에서 더 심한 階級差別과 직업간의 層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第二節 社會統制

社會나 集團들은 物質的 實體가 아니라 窮極的으로 個人行爲의 集積이다. 따라서, 社會秩序의 維持를 위해서는 항상 어떤 종류의 行爲를 確保하고 동시에 어떤 종류

61) 李昌洙, op. cit., p.229.

의 行爲를 防止하여야 한다. 社會統制는 어떤 종류의 行爲를 惹起시키고 어떤 종류의 行爲를 禁止시키는 「影響力 및 權力 (influence and power)의 維持」를 指稱하는 것이다.⁶²⁾

人間社會가 存在하려면 최소한의 秩序는 確保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社會에서나 社會統制가 行하여진다고 보는 見解가 妥當할 것이다.

社會構造的 觀點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社會統制의 類型은 制度的 統制이다.⁶³⁾ 制度的 統制는 制度의 上層部가 대변하는 行動類型을 의미한다. 家族의 成員이 遂行하는 諸役割은 父母의 權威에 의해 保障되고 促進된다. 피고용인은 소유자 또는 경영인의 統制에 예속되기 쉽고 軍人은 지휘관의 權威에 복종한다. 만일, 사람이 制度的 統制로부터 逸脫할 경우 制度의 책임자나 또는 權限을 부여받은 감사원이 制裁를 가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외부로부터의 統制가 아니라 內的인 制裁의 観点에서 본다면 制度的 統制는 個人 안에 作用하는 一般化된 他者 (generalized other)가 制度의 規範을 特殊한 自己의 一部로서 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南北韓 社會의 制度的 統制의 實態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組織生活



社會組織은 개성과 이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그 社會理念에 부합되도록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住民生活에 대한 여러가지 形態의 制度的인 統制를 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特定한 國家目標을 지향하여 각종 行爲를 統制하는 여러가지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南韓은 主權者인 國民의 代表들이 일정한 節次를 밟아 制

62) 高永復, 「現代社會學」, op.cit., p.274.

63) Ibid., p.273.

64) Ibid., p.274.

定된 法에 기초하여 타협, 여론, 교육(민방위나 예비군교육, 새마을교육, 마스크를 통한 홍보교육 등) 등에 의한 社會統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南韓社會의 組織生活은 인간 개개인이 가진 自我實現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外部的 強制나 의무적 강압이 아니라 자자의 人生觀과 組織構成員의 공동된 이익을 성취하려는 방향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익관계에 의한 다종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이 무수하게 공존한다.⁶⁵⁾

그러나 北韓은 黨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통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黨決定이 法命보다 더 큰 拘束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行政府, 司法府, 立法府의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성격을 갖는다.⁶⁶⁾ 교육, 문화기관, 산업경제기관, 사업장, 직장, 사회단체의 모든 중요간부 직위는 공산당 열성당원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이들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자기 黨委員會를 조직하여 黨의 統制體制를 철저히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⁶⁷⁾ 一黨獨裁를 지향하는 統治體制를 구성하게 될 경우 黨이 統治力의 핵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非黨員인 被統治層에 대해서는 黨 自體가 개개인을 직접 統制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대중을 주거별, 연령별, 직종별, 계층별로 조직화하여 이들 社會團體의 지도기관을 黨이 장악하고 이들로 하여금 黨과 大衆과의 매개적 기능을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⁶⁸⁾ 北韓의 각종 社會團體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7~13세는 「소년단」, 14~28세(본인의 희망으로 30세까지 연장 가능)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여성의 경우 18~55세까지는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해야 한다)에 가입해야 하고, 職業別로는 노동자와 사무원을 비롯한 정신노동종사자는 「직업동맹」, 협동농장원은 「농업근로자동맹」에 소속된다. (表3 參照). 이처럼 개인을 團體組織속에 묶어 統制하는 것은 黨的인 행동지도와 사상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시에는 社會動員 能力을 確保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65)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比較」, op.cit., p.17.

66) 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904.

67) Ibid., p.905.

68) 國土統一院, op.cit., p.16.

<表 3 > 南北韓 社會團體의 종류와 규모

구 분	南 韓	北 韓
직업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총) ○ 구 성 : 철도노조 등 총 17개 노조 ○ 조합원수 : 1백1만1천명 ('85년 6월말 현재)	조선직업총동맹 (직맹) ○ 구 성 : 조선경공업노동자, 직업동맹 등 총 10개 동맹 ○ 맹원수 : 약 250 만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 구 성 : 모든 협동농장원 ○ 맹원수 : 약 300 만명
여성 단체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 맹원수 : 약 270 만명
예술 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 ○ 구 성 : 한국문인협회 등 총 10개 협회 ○ 회원수 : 2만여명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 ○ 구 성 : 조선작가동맹 등 총 8개 동맹
청소년단체	보이·걸스카웃 ○ 隊 (unit) 수 : 10,402 個隊 ○ 대 원 수 : 386,553 명 ○ 지도자수 : 49,441 명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사노청) ○ 맹원수 : 약 270 만명 조선소년단 ○ 단원수 : 약 300 만명

※ 자료 :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比較」, op.cit., pp.16 ~ 17.

여기에 南北韓 社會團體의 特徵을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다.⁶⁹⁾

첫째, 組織의 目的에 있어서 南韓의 社會團體들의 주목적이 組織構成員들의 公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고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組織의 자발성에 입각한 非政治的 社會奉仕를 지향하는 데에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의 社會團體들의 目的은 일률적으로 勞動黨의 政策을 住民에게 접근시키고 그 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독특한 役割을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인하여 北韓의 모든 社會團體는 勞動黨의 政策을 住民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南韓의 社會團體는 기본적으로 民主主義型이며, 北韓의 경우는 全體主義型의 組織이다. 統制의 方法에 있어서 南韓의 社會團體들은 組織의 規範을 構成員들이 누구나 가짐으로써 달성되는 데 비하여, 北韓의 경우 統制의 모든 權限은 勞動黨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지도적 역량으로서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社會團體는 강압적 조직이며 動員의 機制(mechanism)은 規範的 社會權力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셋째, 南韓의 경우 각종 社會團體의 指導層은 政治權力이나 特定黨과 분리되어 있고 구성원들에 의하여 또는 代議機構를 통하여 선출되는 데 비하여, 北韓의 경우 指導層은 勞動黨 黨員이며 黨中央委員으로 구성되어 있고, 黨政治局에서 비준되어야 社會團體의 長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 社會團體의 指導層은 北韓 社會에서의 그들의 社會的 身分과 地位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데 비하여, 南韓의 경우 社會團體의 指導層은 社會內에서의 그들의 身分과 地位가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個個人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2. 私生活

現代社會에 있어서 私生活에 대한 統制는 基本的 人權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그 制限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69) 이하의 論議는, 都興烈, 『南北韓社會文化 力量比較』(서울: 國土統一院, 1977), pp.317~320 參照.

南韓의 경우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制度的 裝置로서는, 국민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기체인 住民登錄制, 정부의 공지사항이나 주민생활의 애로점을 토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班常會,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安寧 秩序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民防衛訓練 등을 들 수 있다.⁷⁰⁾ 이러한 制度들은 社會維持와 發展, 그리고 住民 私生活의 질적인 수준 向上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실행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레닌의 住民統制原則을 個人生活에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소련의 10월혁명 직후 레닌은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統制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제 「여유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배불리 먹이지 않는 것이 住民統制의 關鍵」이라고 주장하고 소위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의 목구멍부터 統制해야 한다」는 論理를 전개했다.⁷¹⁾ 이런 맥락에서 北韓에서 실시되고 있는 私生活의 統制方式을 살펴보면,⁷²⁾ 첫째 일체의 衣食住 生活를 장악,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식량배급제와 중요일용품 공급제 등 각종 배급제를 실시하여, 배치된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를 求得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취업강제에 의해 직업선택 및 직장이동을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실직되어 생활수단을 잃게 되고, 個人에 의한 주택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직업인에 한하여 그 직위에 따라 所定號數의 생활공간만을 차지할 수 있다. 둘째, 住民의 私生活과 思想을 간접 통제하는 5호담당제⁷³⁾와 분조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5호담당제는 1958년말부터 北韓의 전세대를 5호씩으로 나누어서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여 부부간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家庭生活 일체를 당적 지도

70) 金學俊外 7人共著, op. cit., pp.302~306 參照.

71)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80), p.477.

72) 國土統一院, op. cit., pp.18~19.

73) 1974년부터 5호담당제는 김일성의 지령에 의하여 인민반(道·市), 분조(농촌) 담당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0가구를 담당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는 설이 있다. (北韓研究所, op. cit., p.906 참조.)

라는 명목으로 감시하는 制度이다. 분조담당제는 공장, 기업소 등 직장안에서의 동료간의 일상언동이나 상하간의 태도 등을 監視하여 密告하도록 만들어 놓은 制度로서 누가 분조담당원인지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다. 이로써 北韓住民들은 家庭과 마을에서는 5호담당제에 의하여, 그리고 職場에서는 분조담당제에 의한 상호 감시속에서 他律的인 맹목적 생활만이 가능하도록 조직화된 統制社會에 살고 있다. 세째, 개인간의 접촉을 制限하는 한편 全住民들에게 김일성 우상화학습, 각종 행사에의 의무적 참가, 사상강습회 등 집단적 均중행동을 통해 가정을 社會主義 革命的 實習場化하고 있다. 네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접촉마저 제한하고 있다. 즉 이웃, 친족, 동향, 동창 등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중과주의 온상」이라 규정하고 사상검토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혈연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는 組織的 關係로 대체되고 統制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이외의 여행이나 통행은 철저히 抑制되기 마련이다.

第三節 社會逸脫

逸脫이란 用語는 規則이나 다른 사람의 期待를 어기는 행동 그리고 制裁나 處罰을 유인하는 행동을 말할 때 使用한다.⁷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逸脫行爲 (deviant behavior)는 人間이 諸 社會的 地位와 關聯된 規範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된 행동⁷⁵⁾ 또는 행위자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制度化된 規範的 類型을 위배하여 행동하려는 動機附與된 傾向,⁷⁶⁾ 特定 社會體制內에서 共有되고 妥當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期待 즉 制度化된 期待를 違反하는 행위⁷⁷⁾라고 定義되고 있다.

74) G.D. Mitchell, ed., *A New Dictionary of Soci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53.

75) R.K.Merton, R.A.Nisbet, ed.,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1), pp.723 ~ 724.

76) T.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1), p.250.

77) A.K.Cohen,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R.K. Merton and others, eds., *Sociology Today* (New York: Basic Books, 1959), p.462.

逸脫行爲에 대한 概念的 規定에 있어서 社會學者들 간의 공통적인 점은 行爲와 퍼스널리티 구조와의 關係性에서가 아니라 行爲와 制度化된 期待 혹은 規範과의 關係性이라는 觀點에서 逸脫行爲를 파악하려고 하는 데 있다.

社會的 規範의 觀點에서 逸脫의 問題를 다루고자 할 때 規範의 內容이 變化함에 따라 非同調가 同調로 혹은 同調가 非同調로 취급받을 경우가 생긴다. 特定行爲는 그 행위가 위반하는 規範의 管轄權에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을 때만 逸脫行爲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⁷⁸⁾ 그러므로 特定行爲의 逸脫性 與否를 究明할 때는 반드시 어느 社會體制 또는 어느 集團의 견해(規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상술할 필요가 있다. 全體社會의 立場에서 逸脫行爲로 간주되는 행위가 特定下位集團에서는 오히려 同調行爲로 인정되어 全體社會의 規範을 全面的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下位集團에서 地位上昇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⁷⁹⁾

社會體制的 構造的 側面에서는 개인이 수행하는 社會的 役割이 重複化, 多角化되면서 이들 役割群 間에 기능적 일치도란 점차 劣化되기 마련이며 逸脫의 可能性은 높게 된다. 예를 들면, 오늘날 官僚集團이나 産業組織에서 발생하는 各種의 病理現象은 이들 집단 혹은 조직체의 構造的 次元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社會體制的 構造的 缺陷은 逸脫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된다.⁸⁰⁾

이런 觀點에서 여기서는 社會體制的 動態的 側面과 相關된 全體社會 立場에서, 그리고 社會體制的 靜態的 側面과 相關된 社會構造的 缺陷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逸脫樣態

南韓은 60年代에 이르러 집중적인 經濟開發政策을 근간으로 資本蓄積의 生産指向의 性格을 띠면서 建設爲主의 國力伸張에 일차적 目標을 집결하였다. 그러나 70

78) Ibid., p.13.

79) 李璋鉉, “逸脫行爲와 社會學的 理論 - 文化傳達 理論과 아노미論을 中心으로-”, 『韓國社會學』 제 3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68), p.3.

80) Ibid., p.4.

年代에 접어들면서 더욱 産業化 政策에 박차를 가해 近代化 시키면서 社會構造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南韓社會의 變化는 近代化라는 일반적인 이상 아래서 民主化, 産業化, 都市化, 平等化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나 이런 변화과정에서, 첫째, 産業化의 發展 價値와 민주화 및 평등화의 발전가치와의 불균형과 긴장이 발생하였으며,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성장 및 격차, 세째, 부의 편중화로 인한 분배구조의 악화와 계급적 양극화, 네째, 사회구조와 가치관간의 괴리, 다섯째, 사회구조의 분화속도와 엘리트의 體系管理能力간의 격차 등을 초래했다.⁸¹⁾ 附言하면, 都市化에 따르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工業化는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자를 창출시켰다. 또한 近代化에 부수된 政治的·文化的 過程은 많은 집단과 階層을 政治體系와 社會體系로부터 소외시켜 階層間的 갈등을 助長·深化하는 병폐를 낳은 바, 階層 間的 相互依存과 接觸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人格的인 交流와는 멀어져가게 되었다.⁸²⁾ 아울러 1960年代 초반기부터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産業化 過程으로 前近代的인 社會組織과 價値體系가 와해되면서 意識構造도 한층더 物量主義的 性向을 보이고 있다. 拜金主義的·黃金萬能主義的 價値觀이 일부 國民들의 意識構造에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物質文化 특히 소비 및 향락문화의 享有度가 社會的 出世 및 成功의 尺度라는 價値觀이 社會的으로 문제되고 있다.

한편 犯罪의 발생양상을 보면, 社會發展에 따라 多樣해지고 난폭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형법상의 犯罪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강도 등의 強力犯의 增加와 靑少年 非行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형법범을 주요 범죄별로 보면 폭행·상해와 살인 등은 增加幅이 鈍化되어 가고 있는 반면, 절도·강간 등의 發生件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형법범중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율이 1982年以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⁸³⁾ '85年 들어 全體 靑少年의 犯罪는 '84年보

81) 林燾燮, op.cit., pp.256 ~ 273 參照.

82) 金學俊의 7人共著, op.cit., p.310.

83)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서울: 경제기획원, 1985), p.309.

다 줄어들었으나 강력범죄는 증가하여 靑少年 犯罪가 갈수록 凶暴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가 집계한 '85年 9月末까지의 靑少年 犯罪는 5만 4천 7백 18건으로 '84년에 비해 6.8%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3천 4백 97건으로 '84년에 비해 3%가 늘었으며 전체 강력범중 靑少年이 61.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地域間의 犯罪에도 차이를 보여 公式的 統計나 實證的 研究에 의하면 都市地域이 農村地域보다 犯罪率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犯罪의 種類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性倫理가 서구문물과 풍조의 유입에 따라 현저하게 왜곡되면서 強姦犯을 포함한 性的 犯罪가 增加될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⁸⁵⁾

北韓의 경우, 그들 社會가 지닌 社會的 不條理의 特性은 그들이 채택한 政策의 方向이라든가 政策決定過程속에서 反社會主義的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단편적이거나 계속적으로 지적해온 데서 나타나고 있다. 1973年 「농업일꾼열성자대회」, 1975年 「공업열성자대회」, 1977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9年 「제 1회 전국노동행정일꾼대회」 등에서 지적한 社會的 不條理와 불안정의 素地는⁸⁶⁾

- ① 김일성교시 학습에 대한 기피현상
- ② 당조직생활의 태만 및 외면현상
- ③ 당원과 노동자의 소극성 및 열성의 부족
- ④ 노동협오와 노동기피현상 그리고 노동규율의 위반
- ⑤ 국가재산의 낭비와 유용 그리고 資材濫用현상
- ⑥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낡은 사상잔재”의 지속
- ⑦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
- ⑧ 청년 인텔리의 反사회주의적 행동과 인간 소외현상 등이다.

84) 동아일보사, 「동아연감」 (서울: 동아일보사, 1986), p.198.

85) 金學俊外 7人共著, op.cit., p.312.

86) 都興烈, op.cit., p.224.

北韓 스스로가 지적한 以上の 諸現象은 오늘날 北韓社會의 底邊에 흐르고 있는 모든 國民들의 內面的 社會意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는 社會的 不安의 素地로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런 現象 이외에도 北韓社會에는 社會的 不滿과 더불어 각종의 逸脫行動이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理想的인 共產主義에서 존재할 수 없는 犯罪 즉 少年非行을 비롯하여 반항운동, 인간소외, 대중화현상, 관료주의, 형식주의, 기회주의, 부르쥬아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이 現實的 社會問題로서 부각되고 있다.

北韓社會에서 發生하는 犯罪類型을 大別해보면 다음과 같다.⁸⁷⁾

첫째, 政治犯, 思想犯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黨의 璽포와 김일성 1인 獨裁體制에 北韓住民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모두다 政治犯으로 몰아세우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政治犯의 犯罪內容을 보면 ① 黨 유일사상 지도체제 위배행위로서 김일성 투쟁역사 왜곡, 김일성 족보비방, 김일성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초상화 훼손 그리고 김일성 교시 비방행위와 함께 일체의 반당·반혁명행위, ② 社會主義社會 建設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유언비어 유포, 혁명역사학습비방 및 태만행위, ③ 黨政策 순결성 훼손행위로서 각종 구호관위치 임의변경 및 훼손행위, 각종 행사시 구호제창과 박수기피행위, 당원증 및 맹원증 분실행위, ④ 간첩행위와 越境脫出行爲 등이다. 이와 같은 政治犯의 경우 一般犯罪의 경우와 달리 국가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취급하는데 罪質이 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政治犯은 社會와 완전히 격리·도태시키기 위하여 일반 교화소와 별도로 特別 獨裁對象區域을 설치하여 이들을 집단수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特別 獨裁對象區域에 수용된 자들은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모든 기본권 또한 완전히 박탈당한 채 자력으로 농경지를 개간하여 자급자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子女까지도 인민학교과정을 이수시킨후 노예에 종사시켜 동일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

87) 이하의 論議는, 洪在亨, 「南北韓社會文化 現況比較」(서울: 國土統一院, 1983), pp. 125~126 參照.

실은 金日成體制의 矛盾과 政治思想的인 면에서 不滿이 많고 이에 따라 犯罪도 增加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둘째, 人身侵害犯이 많다. 北韓에서는 1946年 7月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시발로 1958年 7月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 대하여」라는 內閣決定 84호, 1970年 11월에 있는 黨 5次대회에서 「여성들을 부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政策 등을 채택함으로써 여성들의 지나친 社會進出이 이루어지고, 연애·혼인에 대한 黨과 組織의 통제, 부자유스러운 男女關係 등은 매춘부·강간·간통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파렴치범을 유혹하게 하는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性犯罪의 경우 北韓에서는 個人的인 趣味生活이나 娛樂를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위락시설 또한 거의 全無한 상태여서 黨·行政機關이나 근로단체·협동농장의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農村地域보다 都市地域에 많이 發生하고 있다.

셋째, 經濟犯이 많다. 制度上으로 私有財産制가 철폐되고 개인의 기업활동이 전면적으로 禁止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本質的인 所有欲이 消滅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衣食住에 관한 基本的 欲求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면 物欲充足을 위한 逸脫的 衝動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北韓은 國家財産의 횡령 및 관리소홀, 절도, 양곡의 암거래 및 횡령, 품귀한 상품의 부정유출, 허위보고에 의한 갈취, 부당이득의 착복, 노동기피 등의 經濟關聯犯罪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犯罪는 주로 경리담당원, 매점원, 배급 및 수매사업소 종사원들이나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간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靑少年 犯罪가 문제되고 있다. 北韓의 靑少年들은 어릴 때에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양육되어 유아기에 父母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성장할 뿐만 아니라 靑少年時期에는 소년단과 사로청 등의 各種 組織活動과 社會義務勞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달픈 억압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心理的 傾向이 강하게 나타난다. 더우기 情緒生活을 누릴 수 없는 統制的 社會構造와 함께 만성적인 생활필수품의 부족에서 연유되는 欲求不滿은 이를 탈피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心理的 要因으로 強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諸要因으로 인하여 점차 強化되고 있는 思想教養과 統制에도 불구하고 靑少年들 사이에는 각종 노력동원기피, 상습부당, 패싸움, 강도, 절도, 소매치기 등의 社會的 逸脫行爲와 함께 金日成·金正日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와 같은 反黨·反體制的 事件들이 增大하고 있다. 여기서 摘發된 靑少年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직장 배치도 일체 不許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靑少年의 경우는 본인과 그 가족들까지도 山間僻地로 強制移住시키는 強硬制裁措置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에서 論議된 逸脫行爲의 原因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2. 逸脫原因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社會가 發展하는 過程에서는 機能的 側面과 逆機能 側面으로서의 逸脫과 不條理 行爲가 發生하기 마련이다. 이런 逸脫行爲는 퍼스널리티 構造上의 결함이나 정신적 이상 혹은 무의식 구조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文化的 諸條件에서 그 原因을 찾는 것이 普遍的 現象이다.

南韓의 경우에 있어서도 逸脫行爲의 主原因은 급격한 社會構造의 變化過程을 수반케 하는 經濟發展 過程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高度成長에 따른 貧富의 格差가 그것이다. 經濟成長은 흔히 技術·生産方式·勞動 등의 성격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住民의 生活樣式도 변경시키며 무엇보다도 所得分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經濟成長이 國民의 平均所得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平均所得이 올라가면서 生活이 貧困해지는 사람들의 數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수의 사람들이 經濟成長으로 얻는 소득의 增加分이 다수 대중이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당하는 損失額보다 클 때는 平均所得은 높아지면서도 所得의 中位置 (median)는 떨어진다.⁸⁸⁾ 다시 말해서 平均所得은 올라가면서 平均人의 所得은 떨어지는 것이다.

또다른 要因은 經濟成長과 關係해서 일어나는 技術革新이다. 大企業이 새로운 技

88) 吳甲煥, 「社會의 構造와 變動」(서울: 博英社, 1980), p.322.

術을 도입하여 生産性を 높이면 在來式 技術에 의존하던 中小企業들은 쇠퇴하거나 이윤의 下落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在來式 技術을 사용하는 企業體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失職을 당하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발생한 失職者와 低賃金 勞動者들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해줄 社會保障制度가 현실적으로 확립되기에는 國家經濟基盤이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대중이 더욱 貧困해지고 失職을 당하게 되면 이들은 社會的 不安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貧困의 深化가 不滿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는 곧 逸脫行爲를 유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의 惠澤을 받는 사람의 수가 經濟成長으로 損害를 보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不滿要素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所得의 絕對額이 上昇함에도 불구하고 相對的인 所得 下落을 경험하는 사람들, 즉 과거보다 所得水準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相對的으로 經濟的 地位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만이 클 수가 있다. 소위 相對的 剝奪 (relative deprivation) 感이나 期待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逸脫行爲를 초래케 된다.

다음은 전통적 유교가치관과 민주주의적 가치관과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長幼有序, 男尊女卑, 부모에 대한 孝 등의 개념은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의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⁸⁹⁾ 이같은 過渡的 樣相은 60年代 以後 공업화 추진 이래 價值觀 定立이 시급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처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葛藤 속에서 逸脫現象을 낳고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社會的 不滿과 葛藤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心理的 要因으로 실패자의 挫折을 들 수 있다. 資本主義的인 經濟發展은 個人的 經濟的 成功과 失敗의 差異를 크게 확대시킨다. 經濟的 上昇의 機會가 제공된 현실 속에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자는 致富하여 上層이 되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자는 上昇機

89) 洪承稷, “價值志向의 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韓國社會論」(서울: 民音社, 1980), p.74.

會를 놓치고 더구나 機會利用에서 失敗한 자는 破産 등의 下落을 하게 된다. 오늘날 個人的 成功과 失敗에서 오는 得과 失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입시생들의 入試失敗에서 파생되는 靑少年 問題도 이런 면에서 심각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經濟成長에 뒤지는 政治의 後進性에서도 그 原因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靑年 學生들과 지식인, 反체제인사들의 政府의 正統性은 물론 效率性, 信賴性에 도전을 함으로써 學院葛藤의 原因이 되고 있다.

北韓社會는 南韓과는 相異하게 體制的 矛盾에서 逸脫行爲가 발생하고 있다. 不滿의 素地나 逸脫的 行動의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⁰⁾

첫째, 金日成 個人 偶像化 政策이 지닌 內在的 矛盾에 기인한다. 金日成은 個人崇拜 — 個人偶像化 — 個人神格化 — 家系偶像化 — 世襲體制構築의 政策을 40여년 동안 강행해 오고 있으며, 近者에는 後系體制가 확실히 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偶像化 體制란 근본적으로 개인적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排他的 概念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北韓의 경우는 민족사의 날조와 유일사상의 허구로 個人偶像化의 기반은 더욱 취약하고 가공적이다. 이런 면에서 北韓은 金日成·金正日 父子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체제적 딜레마를 스스로가 조성시켜 왔던 것이다.

둘째, 價値指向의 非現實性이다. 北韓은 그동안 「앞으로 성취될 미래상」에 대한 여러가지 희망적 약속만을 제시해 놓고 住民들에게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現實的으로 實現不可能한 것이라는 점이 점차 입증됨에 따라 住民들이 받는 심리적 동요와 社會的 不安意識은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다.

셋째, 人間本能을 抹殺하려는 社會主義式 人間改造 政策이다. 北韓은 人間の 本能을 전혀 외면하고 인간의 정신을 물질의 반영 또는 模寫로 보기 때문에 그 능동성과 창조성은 소위 黨의 決定 혹은 수령의 교시에 충실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발

90) 이하의 論議는, 洪在亨, op.cit., pp.131-133 參照.

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北韓의 社會主義的인 인간구조방법은 결과적으로 住民의 반발심과 청소년의 不安意識을 사게 되고 나아가 社會不滿의 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네째, 階層構造와 社會的 移動의 硬直性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北韓은 階級的 對立이 없어졌다는 선전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었고 階層變動을 일으킬 정도의 社會的 移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階級構造는 저항적 要素를 政治的으로 철저히 제거하는 權力統制의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階級敎養, 階級政策은 결과적으로 혁명정신·혁명가를 양성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特權階層만을 形成시켜 놓았고 이러한 特權的 地位를 영속시키려는 政策이 강화되는 過程에서 대다수 住民들로 하여금 좌절·불안·소외의 심리를 길러 놓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第五章 南北韓 社會化 過程 比較

第一節 社會化 目標

人間은 社會化 過程을 통해서 인간답게 成長, 發達하며, 社會 속에서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社會的 存在이다. 따라서 個人이 속한 社會가 어떠한 內容들을 이상으로 추구하고 존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社會의 社會化 過程에서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南韓에서는 理想的인 社會像으로, 첫째, 自主的인 사회, 둘째, 자유로운 사회, 셋째, 풍요롭고 平等한 사회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⁹¹⁾

그리고 理想的인 人間像으로는 「주체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등이다. 여기서 주체적 인간이란 사물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의 소유자를 말하며, 창의적 인간이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변화와 개선을 즐겨 추구하고, 비판과 다양성으로 스스로를 개방하는 행동특성의 소유자를 뜻한다. 그리고 도덕적 인간이란 정직, 성실, 질서, 협동, 공공의식과 같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⁹²⁾

결국 社會理想의 水準에서 南韓은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주의의 이념지향이 광범위하게 수용, 지지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이념지향에 입각해서 추구되는 社會的 價値들은 自立, 自由, 豊饒, 平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와같은 사회적 가치에 근거해서 理想的인 人間像은 자주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강조되는 價値 德目들은 自律性, 市民情神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個人的 水準에서의 생활가치로서는 自我實現의 價値와 共同體的 價値 등이 강조되고 있다.

南韓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이 社會化 過程에서 주된 目標로 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91) 金學俊外 7人 共著, op.cit., pp.51-53 參照.

92) 教育개혁심의회 제 6 차 공청회보고서, “ 한국교육이념의 정립 ” (1985), p.19, Ibid., p.57 再引用.

이외에도 南韓은 분단상황을 고려한 理想的 측면의 교육도 社會化 過程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념교육은 一般的인 敎育과 마찬가지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最善我의 實現을 최고가치로 하는 民主主義의 理念 구현과,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한 民族中興과 國家發展을 理念으로 하는 人間像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념교육의 目的은 民主的이고 愛國的인 國民을 양성하는 데 있다. 즉 國民 개개인에 대한 올바른 倫理觀과 國家觀을 정립하고 國家建設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愛國人的 양성을 目的으로 한다.

결국 體制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고 나라에 대한 愛國心과 忠誠心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內面化시키고, 國民的인 지지기반을 굳히는 것이다.⁹³⁾

이상과 같이 社會化에 있어서, 특히 理想的 側面에서는 民主市民의 養成, 人間性을 높이기 위한 人格完成 등 스스로의 생활을 풍부히 하는 능력의 개발에 강조를 두면서 자기 고유의 능력과 방법으로 건전한 사회와 國家發展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성을 높이 伸張시키는 方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共產國家의 社會化 目標은 미래의 共產主義的 市民과 革命家로 造型된 특별한 인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主義者는 黨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대되고, 黨指導를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문제 없이 目的에 無條件 봉사한다. 아울러 共產主義 政權을 支持하며 行動에 편견이 없고, 敵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찬 잘 훈련된 추종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계 동료 노동자를 사랑하는 國際主義者여야 하며, 勞動者들의 解放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北韓은 이러한 價値들을 전승시키기 위해 社會化 過程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支配理念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다. 즉 金日成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지워진 主體思想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만이 유일한

93) 李奎浩, 「國民倫理敎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2), p.46.

國家理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社會에서 형성되고 있는 理想的인 人間像은 한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的 人間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共產主義 社會에 적합한 퍼스널리티 특성으로서 社會化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德目들은 ① 집단주의 정신 ②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③ 노동애호정신 ④ 사회주의적 애국심 等이다.⁹⁴⁾

첫째, 집단주의 정신은 北韓憲法 제68조에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個人의 自己犧牲, 組織에의 順應, 規律性 등의 德目を 집단주의 교양을 통해 훈련시킨다.

둘째,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國家와 黨과 김일성 주석을 동격이라는 논리에 의해 共產主義的 人間의 바람직한 德目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노동애호 정신은 그들 憲法 제 69 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노동을 신성시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한다.

넷째, 사회주의적 애국심은 社會主義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反面에 사회주의의 敵에 대한 적개심을 뜻하는 것으로 미제국주의와 남한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결국 社會理念으로서의 社會主義(마르크스·레닌주의)와 唯一 主體思想 등 공식적 이념들이 표방되고, 그에 기초해서 집단주의, 노동애호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심 등이 社會的 價值德目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社會에서 理想的인 人間像은 정치의식이 강하고, 집단과 조직의 목표에 헌신적이며, 노동과 기술을 존중하는 퍼스널리티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北韓이 社會化 過程에서 專念하고 있는 것은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全人民의 革命化, 全人民의 勞動階級化 등의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94) Ibid., pp.57 - 58 參照.

첫째, 全人民의 共產主義化에 주력하는 이유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대한 철저한 盲信을 통하여 共產體制의 수호자로 육성하는 것이 社會化의 주된 目的이기 때문이다.⁹⁵⁾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에서 보면, 「共產主義에 대한 信念과 革命的 樂觀主義는 共產主義를 위하여 투쟁하는 革命家들의 정신적 꿈모이다. 學生들에게 公산주의 위법의 정당성과 승리의 必要性, 共產主義 앞날의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共產主義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⁹⁶⁾ 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 住民들을 共產主義的 世界觀을 믿게 하고 남은 것을 없애는 일에 과격하게 도전하는 好戰의 性格을 형성케 하며 共產主義的 人間養成에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全人民의 革命化는 革命的 行動化를 위한 社會化의 目的으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도록 行動持性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 革命思想으로 무장하여 그 사상의 기준에 따라 실천하는 行動의 指針인 것이다. 北韓에서 養成하려는 共產主義的 人間이란 그들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辨證法的 唯物論에 입각한 世界觀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따라 行動하는 革命實踐家를 의미한다.⁹⁷⁾ 社會發展이 점진적인 개선에 의한 진보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革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共產主義者들에게는 革命이란 그들이 명분상 제시하는 社會主義 社會建設을 위해 唯一한 手段이며 필요불가결한 방법이 된다.⁹⁸⁾

셋째, 全人民의 勞動階級化이다. 北韓은 人間을 生産의 導具처럼 이용하려는 意圖에서 階級을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의 結果로 보고, 勞動階級이 生産手段을 私有化한 資本主義를 打倒하여 政權을 장악하게 되면 階級없는 理想社會인 共產社會가 實現된다는 理論的 名分으로 기계와 노예처럼 生産에만 專念토록 社會化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北韓의 社會化 目標은 북한 政權에 필요한 행동과 성격을 형성함에 있다고 보고,⁹⁹⁾

95) 朴文甲, “北韓의 政治社會化 研究”, 「서울교육대학 논문집」 제20집 (1987), p.738.

96)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op.cit., p.1762.

97) 朴文甲, op.cit., p.740.

98) 北韓研究所, 「北韓의 統治 이데올로기批判」 (서울:北韓研究所, 1981), pp.299-300.

99) 高性俊, “北韓의 政治社會化(社會教育)에 관한 研究 - 黨 機關紙 分析和 관련하여 -” 「濟州大學 논문집」 제 12집 (1980), p.506.

唯物論的世界觀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그들이 지향하는 共產主義,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끝없이 要求되는 혁명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手段的이며 道具的인 人間을 養成하려는 것이다.

第二節 社會化 媒介體

社會化 (socialization) 는 대체로 보는 관점에 따라 文化同質化 過程, 役割訓練 過程, 衝動的 統制能力 形成過程 등으로 설명된다.¹⁰⁰⁾ 이 내용을 함축한 의미로 社會化를 個人的 特定한 文化圈에 태어나서 습관, 신념, 행동양식을 습득하고 그 문화권의 價値體系 등을 內面化하여 그 社會의 한 成員으로 되어 가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다시 말해서 人間으로 태어난 生物有機體가 정신심리적으로 성숙하여 社會가 기대하는 特定 行動類型을 獲得해 가는 過程을 말한다. 이처럼 社會化는 하나의 有機體에서 社會的 人間으로 發達하고 社會生活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의사전달, 학습 등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¹⁰²⁾ 그 媒介體는 부모, 선생, 이웃, 동료, 매스컴 등 수없이 많다.

여기서는 社會化의 媒介體로 가정, 동료집단, 학교, 직장, 매스컴 순으로 人間이 태어나서 成長하기까지 자기 다른 體制下에서 태도구조 (attitudinal structure) 와 행위유형 (behavioral pattern) 을 자신이 속한 社會集團과 社會體制에 어떻게 학습되며 동화시켜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家庭

家族構成員은 血緣關係에 의해 결합된 가장 基本的 社會組織이며 社會化의 一次的 機能을 담당한다. 自然的으로 契約된 인간에 의한 家族關係는 구성원들의 人性態도의 形成과 文化의 基本的 價値의 獲得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一次的 結社體를 形成한다.¹⁰³⁾

100) 李璋鉉外 共著, op. cit., p.105.

101) Ibid., p.106.

102) G. D. Mitchell, ed., op. cit., p.205.

103) B. Y. Ahn, "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 A New Socialist Man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ed., *NORTH KOREAN COMMUNISM,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108.

인간은 生理的 次元에서는 다른 동물에 비해 獨自的으로 生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는 어른들의 보살핌이 없이는 生存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父母의 役割은 매우 決定的이다.

이런 면에서 家庭이 社會化와 관련하여 고려될 때 개인이 속한 그 家庭의 社會經濟的 位置, 家族構成員의 人間關係, 父母들의 養育方針과 制裁方式 등은 개인이 成長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世界觀, 社會觀, 人生觀 등을 결정지워 주게 된다.

南韓社會에서는 비록 전통사회에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기혼여성의 就業이 普遍化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幼兒養育의 직접적인 擔當者는 어머니이다. 南韓의 家庭은 在來式 養育方式을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한편으로 歐美式 社會化의 方式을 導入하는 混合型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三綱五倫式 傳統的 規範은 溫存하면서도 그것을 近代의 性格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性向을 띠고 있다.¹⁰⁴⁾ 결국 南韓社會의 家庭은 傳統的 閉鎖性과 近代의 開放性을 綜合·止揚하는 方向으로 社會化되어 간다.

北韓은 傳統社會에서 家族이 차지한 중요한 役割들이 社會主義 建設에 障礙物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위 資本主義를 유교적인 전통의 殘滓로 간주하여 이 文化要素를 除去해 버릴려는 강력한 시도를 한 바 있다. 北韓 憲法 제 63조에 보면 家庭을 「社會의 細胞」라고 規定하여 家庭의 特殊性을 消滅시키고 社會主義 사회에 적합한 家族을 形成시켜 가족적 유대를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社會化 過程의 一次的 課業을 토틈히 정비해 놓고 있다.¹⁰⁵⁾ 그러나 이런 틀 속에서도 父母와 子息들 간의 긴밀한 家族關係를 파괴시키는 표면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孝의 觀念을 統治手段으로 이용코자 殘存시키고 있는 것 같다.¹⁰⁶⁾ 아울러 子息이 父母를 존경하고 父母의 노후를 돌보는 것은 道德的 義務이며

104) 高永復, “文化和 性格構造의 異質化”, 「통일정책」 제 3권 제 4호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77), p.173.

105)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op. cit., p.241.

106) 李文雄, “北韓政治 文化의 形成과 그 特徵”, 「통일정책」 제 4권 제 2호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78), p.187.

만약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背恩忘德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는 점¹⁰⁷⁾ 등은 家庭生活의 重要性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北韓의 家庭은 在來式 遺制를 完全히 拂拭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폐쇄성이 尙存하지만 그것을 集合體的 規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集團主義的 心性으로 변형시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北韓의 어린이는 산모의 출산휴가(産前 10일, 産後 20일)만 끝나면 家庭의 품에서 분리시켜 퍼스널리티가 固着되기 전에 集團 속에서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개조시키려고 탁아소에 의무적으로 보내진다.¹⁰⁸⁾ 도시 어린이는 生後 3개월 이상부터 만 4세까지 어머니가 職場에 나가는 동안 탁아소에서 보육하고 있고 농촌 어린이는 농번기에 대부분이 常設 또는 季節 탁아소에 수용된다. 탁아소는 종래 1일 탁아소를 폐지 또는 약화시키고 週 탁아소, 月 탁아소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4세 이하의 어린이들 만을 수용하여 國家와 黨 그리고 金日成 個人에 대한 충성심¹⁰⁹⁾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실정하에 있기 때문에 南韓의 경우는 社會化의 過程에서 家族이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지만, 北韓의 社會化 過程에서는 家族의 영향이 制限的이다. 그리고 南韓에서는 家族의 기대를 어겼을 경우에 制裁를 받지만, 北韓에서는 家族보다는 社會의 기대를 어기는 편이 制裁를 강력하게 받는다.¹¹⁰⁾

2. 同僚集團

父母와 全人格的 關係를 맺었던 어린이는 점차 同年輩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보

107) 이흥중, “결혼 가정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평양: 민청출판사, 1958), p.67, Loc. cit., 再引用.

108) 廉弘喆,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가치관 형성”,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南北韓 價値觀 形成에 관한 比較」 (서울: 국토통일원, 1976), p.53.

109) “탁아소의 세상 먹은 아이들이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우리의 친애하는 동지 김정일’ 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들은 모든 노래는 전부 김일성의 출생, 항일투쟁 등 그의 일생에서 테마를 구한 것이었다.” (외무부, 「북한방문 보고집」, p.49,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152 再引用.)

110) 高永復, op. cit., p.174.

다 흥미를 갖게 된다. 이 集團에서는 父母로부터 받는 것과는 다른 態度와 行動이 要求된다. 同僚들 사이에서 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어린이의 행동을 促發할 수 있는가에 따라 地位의 序列이 생긴다. 그리하여 同僚集團 사이에 일종의 期待 體系가 확립된다.¹¹¹⁾ 그리고 同種의 文化圈에서 同僚들은 우세한 가치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補強됨으로써¹¹²⁾ 자연발생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가 확립되어 주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면에서 南北韓의 同僚集團에서의 期待體系 혹은 價値體系가 무엇인가는 그들의 社會化 過程에서 많은 差異를 보인다.

南韓의 경우 同僚集團에서는 사교적 적응도가 높은 아이가 인기를 얻고 組織化된 團體에 加入하는 것이 自意에 맡겨져 있다. 즉 南韓의 어린이들은 집단압력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받아 들인다.

反面에 北韓은 혁명적 투쟁심이 완강한 어린이가 중심인물이 되도록 유도되고, 組織化된 團體에 加入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北韓은 어릴 적부터 組織生活에의 훈련이 철저히 수행되고 있으며, 집단압력을 통하여 人間性이 特定의 方向으로 구조되어 간다.

그래서 南韓에서는 個人 우위의 內的指向形을, 北韓에서는 社會 우위의 組織指向形을 同僚集團 사이에서 제각기 理想型으로 바라면서¹¹³⁾ 社會化되어 가고 있다.

3. 學校

教育을 담당하는 각급 學校의 機能과 氛圍氣가 社會化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 이유는 學校가 父母처럼 어린이에 관련해서는 權威的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 教育에 대한 學校의 전문적 관심 때문에 또 學校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學校는 그 自體가 실시하는 훈련의 종류에 있어서, 또 그것이 전달하는 知識의 斬新性에 있어

111) Ibid., p.175.

112)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Nelson, 1973), p.126.

113) 都興烈, 「南北韓社會文化 力量比較」, op.cit., p.41.

서 더 伸縮性을 가질 수 있음으로 해서이다.¹¹⁴⁾ 이와 같이 學校는 규칙적인 생활과 여러가지 형태의 討論, 說得, 訓話 등을 통하여 가장 體系的으로 社會의 文化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南韓의 教育은 國民教育憲章을 基本 理念으로 하고 이 理念을 生活化하며 國家發展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韓國人을 養成하는 것을 基本 目標로 삼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최고도로 伸張하는 全人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南韓의 教育機關은 인격도야의 수련장으로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학제인 6·3·3·4 제에서 의무교육 연한은 현재 國民學校 6年에서 中學校까지 9年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農村地域부터 점차로 大都市 地域까지 확대하여 1989年度에는 9年間 완전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南韓은 各人이 教育을 받을 기회를 均等하게 부여 받으면서 장차 社會人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직업을 求得하기 위한 技術教育을 習得하면서 學問研究의 도장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南韓의 學校는 民主市民의 人格完成과 自律의 生活能力을 培養하는 方向으로 社會化되어가고 있다.

北韓 教育의 最終目標은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者」와 「共產主義의 새 인간형」을 생산하는 데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세 가지 특별한 내용으로서 金日成은 ① 共產主義者 教育 ② 革命 教育 ③ 勞動階級 教育 등을 표방했다.¹¹⁵⁾ 이 내용을北韓은 憲法 제 39 조에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智·德·體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하여 全體主義, 集團主義의 理念의 구현. 혁명가와 共產主義的 새 인간 양성을 教育目標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北韓의 社會主義 教育原理란 靑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教養시킴으로써 靑少年들을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 것이고

114) Kingsley Davis, *Human Society*, 李萬甲·高永復 共譯, 「社會學」 (서울: 乙酉文化社, 1964), p.253.

115) A. C. Nahm, *op.cit.*, p.77.

건설에 주인공격에 참가할 수 있는 思想과 知識과 健壯한 體力을 가진 믿음직한 革命人材로 키우는 것이다.¹¹⁶⁾ 이에 따라서 北韓의 教育機關은 「사상혁명 수행을 위한 기본 수단의 하나」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로서 「혁명투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兵營化되고 勞力場化되어 있다.¹¹⁷⁾

北韓은 1956年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58년에는 중등의무교육, 1967년에는 9年制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72年 9月 1日부터는 10年制 中高等義務教育에로의 移行을 實施함으로써 幼稚園의 높은 班에서의 1年 교육을 포함 11年制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北韓의 教育에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革命的식을 고취하는 思想教育이 體系的으로 展開된다. 특히 金日成 우상화 교육은 철저하게 주입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을 다녀온 사람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탁아소에서 大學校에 이르기까지 학교 건물과 教室에는 金日成의 동상과 사진이 빠짐없이 걸려 있었다. 金日成의 초상화와 일대기가 모든 教室의 벽에 모셔져 있고 그의 어록이 복도의 벽이나 심지어 천정에까지도 붙어 있어 눈길을 모았다.”¹¹⁸⁾ 이와 같이 「수령의 참된 아들·딸로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金日成의 어린시절에 관한 극히 왜곡된 역사는 학습을 위한 성전이 된다.¹¹⁹⁾

金日成 神格化와 더불어 主體思想 教育은 人民學校와 高等中學校의 10年間 教育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시됨으로써 철저한 金日成의 맹종자가 되는 진정한 共產主義者로서 필요한 人間形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北韓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大學教育은 個人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그의 家族이 바란다고 해서, 經濟的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北韓 政權의 계획에 맞추어서 선 발된 젊은이들에게 주어진다.

116) 李宇榮, “北韓 靑少年의 精神戰力 形成에 關한 考察”, 「平和研究」 제 5집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72), p.54.

117)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比較」, op.cit., p.88.

118) 양성철, 박한식 편저, op.cit., p.97.

119) 李文雄, op.cit., p.188.

教育面에서 北韓은 학생들의 討論과 적극적인 參與를 통한 학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교수업에서 각 학급반은 여러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학생들로 하여금 돕고, 집단적인 책임과 集團主義的인 態度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學校雰圍氣는 그것이 教室內 正規授業이든 아니면 非正規的 教室外 課外活動이든 간에 集團主義 思想教養의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¹²⁰⁾

北韓에서는 특정의 學校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어떤 위세를 가져오거나 연령과 학년에게 초한 權威意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相互依存性 (inter-dependence) 과 友愛關係 (comradeship) 를 기르는데 있는 것 같다.¹²¹⁾ 그리고 어려서부터 北韓의 젊은이들은 組織生活 — 學校, 少年團, 社勞靑, 學習集團 및 기타 특수 활동을 위한 수많은 集團 — 밑에서 成長하면서 그들의 集團과 社會全體의 이익을 최대한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社會를 위한 個人的 努力은 영예로운 것으로 評價되기 때문이다.

4. 職場

學校를 떠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職業을 갖고 職場에서 일하게 된다. 職場 組織體에서는 주로 職業과 관련된 活動이나 專門的 作業에 적합한 갖가지 知識, 態度, 技能, 生活樣式 등을 훈련 받는다. 따라서 職場生活를 통해 사람들은 이른바 職業的 퍼스널리티를 形成하기도 한다.

南韓에서는 學校에서의 教育水準과 맞추어 각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통한 자유경쟁 하에서 職場을 선택하게 된다. 職場 속에서의 個人은 각자의 능력과 취미에 맞는 각종 모임과 對人關係를 통해 成人으로서 社會化되어 간다.

北韓에서는 1958年末을 기하여 個人的인 상공업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個人的 私有財産制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一切의 生産工場, 經濟機關, 文化, 厚生, 의료, 서비스

120) 高性俊, 金恒元, 金泰保, “北韓의 政治社會에 關한 研究 — 이데올로기와 政治社會化를 中心으로 —”, 「이데올로기 연구논총」 제1집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 비관교육연구회, 1983), p.34.

121) 李文雄, op.cit., p.196.

기관들은 모두가 국영 또는 협동단체경영이라는 명목아래 黨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의 취업은 個人的 선택에 의한 자유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소정의 엄격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住民各者는 스스로의 능력, 관심, 업적을 통해 임의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行政府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와 幹部部(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해 정치적인 신임도를 물은 후 配置狀 또는 紹介狀을 發付하여 해당 직장에 배속케 한다.¹²²⁾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일단 正規教育을 마치고 社會에 進出한 후 각종 조직—직업총동맹, 농업노동자동맹, 여성동맹 등—속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社會團體는 形式上으로는 共產黨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命令系統上 黨의 지휘하에 들어 있다. 즉 「黨과 大衆과의 연계를 보전하는 引轉帶(벨트)로서의 근로단체」들은 「黨의 믿음직한 幫助者이며 後備隊이며 이 단체들은 자기 대열내에서 黨의 思想體系를 확립하며 근로대중을 黨 주위에 집결시키고 그들을 黨政策 실현에 조직 동원」한다¹²³⁾고 함으로써 黨은 社會構成員의 모든 생활영역을 組織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北韓 憲法 제 40 조에는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 육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과 생활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라고 규정되어, 職場 속에서의 모든 團體들이 相異한 階層의 독자적 이해를 대변하는 組織으로서가 아니라 黨이 요구하는 특정 방향으로 國民을 동원하고 정비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교육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共產主義 思想을 學習시킴으로서 스스로 노동하려는 自發性을 촉진시키며 「8 시간 노동, 8 시간 학습, 8 시간 휴식」이라는 원칙하에 金日成 神格化 學習, 思想學習會 등을 통해 私生活 영역이 억압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學習方法은 自己批判, 集團討論에 의한 集團決定의 形式으로 이루어짐으로써 集團主義 原則에 길들여지면서 社會化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장 속에서의 조직들은 黨의 社會的 動員政策에 기꺼이 부응하

122)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op.cit., p.546.

123) Ibid., p.248.

는 「새로운 자동 인간형」의 주조를 위하여 再社會化(re-soci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

5. 매스콤

매스콤의 發達에 힘입은 광범한 보급은 그 효과와 영향으로 수용자는 쉽게 설득되어 새로운 태도와 행위유형을 낳게 한다. 그래서 매스콤의 운영방식이 民主的이나, 統制的이나에 따라 매스콤에 의한 社會化의 효과도 相異해 질 수 밖에 없다.

南韓은 다수의 매스콤이 民間에 의해 운영되며, 민영은 수익성 위주의 自由企業의 성격을 띠면서, 모든 운영의 자율적 통제에 의거하고 있다. 傳達內容 면에서도 자유취재, 보도 및 논평에 의거해서 國內外的 政治問題, 경제동향, 사회문화, 오락, 소설 그리고 만화 등 다양하고 균형있게 취급되고 있다.¹²⁴⁾

北韓 社會에서는 모든 매스콤을 國家가 獨占하고 있다. 매스콤의 獨占은 民間의 通信通路를 切斷함으로써 反對集團形成의 可能性을 봉쇄할뿐더러 體制維持에 해로운 情報源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反對的 態度發生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¹²⁵⁾

金日成은 “신문, 잡지, 서적 같은 出版物이야말로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黨이 제시하는 革命課業 실천을 위해 로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 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함으로써 매스콤은 정보의 전달과 오락, 교양수단으로서가 아니라 黨과 政權機關이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¹²⁶⁾ 더우기 北韓은 勞動黨 안에 있는 선전선동부를 통해 신문, 잡지, 단행본 등 모든 출판물과 방송, 전단에 이르기까지 量과 배포, 회수 및 그 성과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위 선전, 선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²⁷⁾

北韓 新聞들의 紙面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고 있다. 北韓에서의 言論의 임무로서 다

124) 洪在亨, op.cit., p.31.

125) 高性俊·金恒元·金泰保, op.cit., p.37.

126)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op.cit., p.1148.

127)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op.cit., p.557.

음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¹²⁸⁾

- ① 金父子 우상화에 선봉장이 되고
- ② 黨政策의 선전과 그 실천을 강조하며
- ③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주민선동
- ④ 對南 악선전과 적화통일 선동
- ⑤ 反美, 反日, 反帝 투쟁 선포
- ⑥ 國際的 지지획득을 위한 해외선전

신문, 방송 이외의 잡지를 비롯한 모든 出版物도 선전 선동을 主目的으로 하여 黨과 그 外廓團體들이 管掌하는 出版社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內閣出版總局의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으며 黨路線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黨기관지를 비롯한 매스컴이 黨의 統制下에 운영되고 있으며 住民들에게 金父子와 北韓體制에 순응하는 「새로운 共產主義 人間型」을 제시하고 의식과 행동을 그 모델에 따라오도록 하는 一方的 社會化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8) 북한연구소, 「북쪽사회 어디에 와 있나」(서울:북한연구소, 1986), pp.126-127.

第六章 結 論

以上에서 本 研究은 資料의 制約에도 불구하고 南北韓 社會體制의 序說的 比較를 시도했다.

지금까지 南北韓 比較에서 나타난 内容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體制의 特徵 面에서

南韓은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의 諸要素로 인해 社會도 다분히 位階序列的 權威關係, 資源의 集權化, 閉鎖的 決定行使, 限定된 參與와 表出, 命令에 의한 動員, 硬直된 信念과 關係, 組合主義的 志向을 組織原理의 特性으로 드러내는 構造를 이루게 된 反面, 北韓은 金日成 主體思想과 黨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全體主義的 社會體制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둘째, 社會階層 面에서

南韓은 個人의 창의적 노력, 성취업적, 자율적 선택으로 자유로이 이동 가능하며 多樣的 基準으로 階層區分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北韓은 出身性分과 黨性이라는 다분히 政治的 價値基準에 의한 硬直된 身分制的 階層構造를 이루고 있다.

셋째, 社會統制 面에서

南韓은 국민이 선출한 國民의 代表들에 의해 制定된 法에 統制根據를 찾고 여기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비해, 北韓은 입법, 행정, 사법 三府의 上位에 군림하고 있는 黨에 의한 統制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統制機構와 監視組織을 통한 개인생활까지 규제되어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자유로이 表出할 수 없다.

넷째, 社會逸脫 面에서

南韓은 經濟開發의 급속한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逆機能으로 犯罪, 비행 사회적 부조리가 發生하는 反面, 北韓은 個人偶像化 政策과 人間本能을 말살하려는 共產主義式 人間改造에 따른 불만에서 나타나는 逸脫현상이 두드러지며, 經濟水準의 낙후성에서 오는 經濟犯의 발생도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다섯째, 社會化 面에서

南韓은 각 媒介體가 자유로이 인간다운 정서를 배양시켜 건전한 人格을 갖춘 生産的

인 社會人的 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反面, 北韓은 主體型的 共產主義的 새 人間의 양성을 위해 각 社會化 媒體가 連續性을 지니고 추진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社會體制에 있어서 南北韓間에 相異點을 전제로 하여 볼 때, 南韓은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開發政策과 近代化 작업에 의한 經濟成長으로 物質 文化 生活의 개선과 향상은 급속도로 이루어 왔다. 이런 면에서는 北韓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産業化·都市化 過程에서 야기되는 병리현상과 經濟成長에 못 미치는 政治發展 등은 社會統合과 安定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黨 唯一思想에 의한 社會統合, 勞動力의 動員組織, 강력한 社會化의 일관성 등의 면에서 全體主義的 획일사회가 가지는 강한 면을 지니고 있다. 즉 全體主義的 動員體制를 완비한 北韓은 노동인력을 최대한 착취, 최대한 動員하는 대신 노동력의 단순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人間生存條件에 대해서만 제도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¹²⁹⁾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이데올로기는 그들이 지향하는 社會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自由, 欲求, 行動, 希望 등을 포함하는 生活範圍와 價値觀, 人生觀 까지 統制하게 되고 다수의 소외계층의 탄생을 초래하게 되는 逆機能도 내포하고 있다. 더우기 金日成 唯一思想의 철저한 주입으로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의식은 과감한 행동력을 나타낼 수 있으나 金日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의 인식 등 特定 動機가 부여되면 쉽게 와해되고,¹³⁰⁾ 급기야는 「體制顛覆集團」의 태동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韓半島의 분단은 地理的 分단 상태를 넘어 單一民族으로서 갖는 社會的 同質性이 심각한 異質化 현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기 어느 정도의 문제점도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의 해결에 있어 南韓은 可能性의 정도가 높은 反面, 北韓은 金父子의 世襲體制 構築을 위해 內在된 問題點들이 더욱 尖銳化되어 深化될 것으로 판단된다.

129)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比較」, op. cit., p.137.

130) 吉成喆, “북한사회 역기능 분석”, 「北韓學報」 제 7집 (서울:北韓研究所, 1983), p.205.

參 考 文 獻

-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康根享, “韓國政治文化의 性格에 關한 考察”, 「論文集」 제 22집, 제주: 제주대학교, 1986.
- 高性俊, “공산주의 체제 비교 연구의 접근법 서설 -북한 공산체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연구 논총」 제2집, 제주: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연구회, 1984.
- _____, “北韓의 政治社會化(社會教育)에 關한 研究 - 黨 機關紙 分析과 관련하여-”, 「논문집」 제 12 집, 제주: 제주대학교, 1980.
- 高性俊·金恒元·金泰保, “北韓의 政治社會에 關한 研究 -이데올로기와 政治社會化를 中心으로-”, 「이데올로기연구 논총」 제 1집, 제주: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연구회, 1983.
- 高永復, 「現代社會學」, 서울: 法文社, 1979.
- _____,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통일정책」 제 3 권 제 4호, 서울: 평화통일 연구소, 1977.
- _____, “自由民主主義를 위한 社會的 條件”, 「新東亞」 통권 323 호, 1986, 2.
- 國土統一院,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1980.
- _____, 「남북한 비교도해」, 서울: 국토통일원, 1984.
- 樞東問題研究所, 「북한전서」,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 _____, 「원전 공산주의 세계 -이론과 비판-」 (상),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5.
- 길성철, “북한사회 역기능 분석”, 「北韓學報」 제 7 집,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金璟東,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사회갈등 -사회의 발전에 대한 합의-”,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5.

- 김영모, 「한국사회계층 연구」, 서울: 일조각, 1982.
- 金雲泰, 「政治學 原論」, 서울: 博英社, 1978.
- 김용구, 「북한주민의 계층별 생활분석 -적대계층 중심으로-」, 서울: 국토통일원, 1977.
- 金彩潤, 「社會階層論」, 李相禧 編著, 「現代社會論」, 서울: 서울大出版部, 1979.
- _____, 「한국사회계층의 구조와 변동」,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韓國社會論」, 서울: 민음사, 1980.
- 金泰龍, 「階級の 操作的 區分과 몇가지 特性」, 「社會科學研究」 제 3 집, 경북: 경북大 社會科學研究所, 1985.
- 김학준·임희섭·이문웅·이항구·도홍열·김남식·김동일·이창하 共著, 「남북의 생활상 -그 삶의 현주소-」, 서울: 박영사, 1986.
- 金恒元, 「北韓政治體系の 特殊性」, 「이데올로기연구 논총」 제 3 집, 제주: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연구회, 1985.
- 도홍열,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 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1977.
- 민병천, 「북한 공산주의」, 서울: 대왕사, 1983.
- 朴文甲, 「北韓의 政治社會化 研究」, 「논문집」 제 20 집, 서울: 서울교육대학, 1987.
-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일지사, 1978.
- 박응희, 「남북 사회문화 비교」, 「北韓」 통권 112, 서울: 북한연구소, 1981.
-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_____,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_____, 「북한사회 어디에 와 있나」, 서울: 북한연구소, 1986.
- _____, 「北韓의 統治 이데올로기 批判」, 서울: 北韓研究所, 1981.
- 申正鉉, 「分斷時代의 民族現實과 統一史觀定立의 課題」, 「精神文化研究」,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安秉水, 「自由民主主義의 흐름과 韓國의 현실」, 「新東亞」 통권 323 호, 1986. 8.

- 梁性喆, “南北韓 政治體制 分析模型 一序說的 試圖一”, 「한국정치학회보」 제 20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1986.
- 梁性喆·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서울: 한울, 1986.
- 염홍철,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가치관 형성”,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남북한 가
치관 형성에 관한 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1976.
- 吳甲煥, 「社會의 構造와 變動」, 서울: 博英社, 1980.
- 윤동현, “북한의 사회문화”, 「북한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2.
- 이문웅,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과 그 특징”, 「統一政策」 제 4 권 제 2 호, 서울: 평화
통일연구소, 1978.
- 이상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언론」, 서울: 범우사, 1979.
-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범문사, 1981.
- 이우영, “북한청소년의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고찰”, 「平和研究」 제 5 집, 경북: 경북
대 평화문제연구소, 1972.
- 李璋鉉, “逸脫行爲와 社會學的 理論 一文化傳達 理論과 아노미論을 中心으로一”, 「韓
國社會學」 제 3 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68.
- 李璋鉉外 共著, 「社會學的 理解」, 서울: 法文社, 1982.
- 이창수, “社會政策과 體制發展”,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역,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5.
- 임채욱, “낮은 우선순위로 양적열세와 학문적 접근 미흡”, 「北韓」 통권 161 호, 서울:
북한연구소, 1985.
- 林煥燮, “韓國社會의 構造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韓國社會論」, 서울: 民音
社, 1980.
- , “韓國人의 중류의식 一그 실상과 허상一”,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正音
社, 1986.

- 정근식, “화이트칼라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韓國社會學研究」 제 7 집, 서울: 서울
 大사회학연구회, 1984.
- 조영빈,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6.
- 崔章集, “自由民主主義냐 官僚的 權威主義냐”, 「民族知性」, 서울: 民族知性, 1987.6.
- 崔在律, 「남북한 사회문화체제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6.
- 최흥기, “북한체제 및 사회예측”, 「統一政策」 제 5 권 제 3 호,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79.
- 平和統一研究所, 「북한개요」,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86.
- 홍두승,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전망”, 韓國社會學會 編,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3.
- 洪承稷, “價値志向의 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社,
 1980.
- 홍재형,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 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황성모, “남북한 사회변화와 통일문화 창조”, 「통일문화창달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경제기획원, 1985.
- 동아일보사, 「동아연감」, 서울: 동아일보사, 1986.
- 동아일보, 1987. 4. 3.
- Ahn, B. Y.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 A New Socialist Man —,” *NORTH
 KOREAN COMMUNISM,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 Bunge, F. M. *North Korea — a country study*-. Washington D. C. : United
 States Government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Army, 1981.
- Chung, C. S., Kim, G. C. ed., *NORTH KOREAN COMMUNISM — A Compar-
 ative Analysis* -.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
 tion, 1980.

- Cohen, A. K.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Merton, R. K. and others, eds., *Sociology Today*. New York : Basic
Books, 1959.
- Davis, K. *Human Society*.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49, 李萬
甲·高永復 共譯, 「社會學」, 서울 : 乙酉文化社, 1964.
- Friedrich, C. J., Brzezinski, Z.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 Frederik A. Praeger, 1964.
- Jaros, D.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Nelson, 1973.
- Linz, J.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Greenstein, F. I., Polsby
Nelson,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New York : Addison -
Wesley Publishing Co., 1975.
- Merton, R. K. and Nisbet, R. A. ed.,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61.
- Mitchell, G. D. ed., *A New Dictionary of Sociology*. London : Routledge & Keg-
an Paul, 1981.
- Nahm, N. C. *North Korea*. Michigan :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
ern Michigan University, 1978.
- Parsons, T. *Societies -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New Jer-
sey : Prentice-Hall, 1966.
- . *The Social System*. New York : Free Press, 1951.
- Sills, D. L.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5.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8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im Young-Mi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ung-Joon

With the limited materials, I made an introductory study that compares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in its social system. The comparison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1. Social Structure

The soc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its authoritarianism. North Korea, however, shows totalitarianism as its main feature under which Kim Il-sung's Chuché ideology goes prior to all evaluation.

2. Social Stratum

In south Korea, social strata are determined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 furthermore, such strata are seldom, if ever, mandatory.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ty of north Korea is marked by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rigid status system which resulted from its emphasis on the family line and party natu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7.

3. Social Control

South Korea bases its social control on the national law, and thereby guarantees the people freedom of life provided that the law is not violated. By contrast, north Korea keeps civil life under restraint by mobilizing all sorts of control organs and other surveillant systems.

4. Social Deviation

There has been a marked, even sharp, growth in south Korea's economy. But the phase of social deviation began to appear as an adverse effect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s for north Korea, such an aspect is due to disaffection of the people that has been provoked against the cult of personality as well as the communist policy of reform in humanity.

5. Socialization

Socialization in south Korea is oriented towards cultivating full-fledged members of society that are of sound, or productive, personality. North Korea continues to rear a new communist generation as its main group, however.

After all,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far beyond its mere state of the geographical division. The social homogeneity that an unitary race would show on the whole is facing serious crisis in this peninsula.

As the comparison proved, it is clear that both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quite a lot problems. But with respect to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south Korea shows promise as contrasted. On the part of north Korea, contrariwise, the problems which has been effected from the attempts to secure the Kims' power-descent may be increasingly deepened.